

김부겸총리 "시신이라도 찾도록, 당사자들 진실 보여달라"

"진실보다 위대한 사과와 애도 없어... 화해와 용서의 시작"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대한민국은 '오월 광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들, 헬기사격, 발포책임자 규명 등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진실보다 위대한 사과와 애도는 없다. 진실의 고백은 화해와 용서의 시작"이라며 "전국에 계신 여러 당사자와 목격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한 역사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광주시민께서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아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김 총리의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다시, 5월입니다. 5월 영령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이곳에서 5·18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1년 전 5월, 우리의 민주주의는 신군부의 야욕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대구의 2·28민주운동, 대전의 3·8민주의거, 마산의 3·15의거를 통해, 마침내 4·19혁명으로 꽃피운 민주주의의 봄이 다시 한 번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타오른 시민들의 저항과 '서울의 봄'을 지키고자 했던 힘이 약해져가던 바로 그때, 광주의 시민들이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 자매였던 평범한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을 외치며 거리의 투사가 되었습니다.

민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세우며 총부리를 겨누던 군부독재의 무자비한 탄압에 피 흘리며 맞섰습니다.

부정한 권력이 야만과 광기로 내달릴 때, 광주는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민주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재에 맞선 모든 이웃과 시민을 내 가족처럼 보듬어 안은 하나 된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5월 광주 이후, 그날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곧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5월 광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



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광주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이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광주시민과 5·18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화해와 용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가해당사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오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용기 있는 증언과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되었던 공수부대원이 자신의 총격으로 희생당한 고(故) 박병현 씨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고인의 형제서는 "늦게라도 사과해 주어 고맙다.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마음 편히 살아달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진실보다 위대한 사과와 애도는 없습니다. 진실의 고백은 화해와 용서의 시작입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 당사자와 목격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애절한 심정,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라도 알고 싶은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묶여있는 그 한을 풀어 주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역사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께서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장병들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들, 헬기사격, 발포책임자 규명 등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많습니다.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오월 광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의 용기 있는 진술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은 단 한마디의 고백과 사과도 없습니다.

역사의 이름으로, 광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터무니없는 왜곡과 날조로 5·18 영령과 유가족은 물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모욕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을 범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오월 광주'를 역사적

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은 혼돈의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광주는 희망입니다.

지금도 광주에서는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입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비단 미얀마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부정부패,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에 저항하는 모든 시민들이 광주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한 오월 광주의 정신은 코로나 19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너무나 절실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해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마저 부족해진 극단의 위기에 처했을 때, 광주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순천의료원'이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대구의 환자들에게 병상을 내 주셨습니다.

끝없이 밀어닥치는 환자에 대구의 의료진들이 지쳐 쓰러져 갈 때, 광주시의사회가 '달빛의료지원단'을 꾸려 대구에 와주셨습니다. '오월어머니집'에서는 대구시민과 의료진들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월 정신'입니다. 오월 정신은 달빛 동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를 달리는 518버스, 광주를 달리는 228버스도 보았습니다.

오월 광주가 외롭지 않았듯이, 2020년 대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분열과 갈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갈라놓은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월 정신을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갑시다.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아래,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민주영령과 유공자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켜나갑시다.

다시 한 번, 엄숙한 마음을 밝힙니다.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수/기자

[칼럼]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지금으로부터 41년 전 필자가 태백공업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일 때였다.

바로 옆 중학교에서 바라본 보다 옮겨간 고등학교는 매주 월요일 교련복을 입고 분열 연습을 하고 학교호국단이라는 명칭에 원지자부심이 뿌듯했던 때였다.

광수 부러워만 하던 2인조 브라스밴드에 입단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왜 지원 안 하고 강제로 선발했는지 알게 됐다.

매주 토요일이면 교직원들이 퇴근하고선 배들의 줄짜리를 안 맞으면 서운할 만큼 관례였다.

한 서른대씩 맞고 나면 매도 중독이 되던 가습관 되던 잘 버티게 된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절반은 자퇴하거나 전학갔을 것이다.

1980년 5월 요즘처럼 봄날의 화창한 날씨가 교내를 감싸고 아따곰씩 흐드러지게 핀 아카시아 꽃향기가 눈 감아도 눈 떠도 여전했던 시절이었다.

일찌감치 세상물정에 눈을 뜬 덕분에 조간신문을 보면 요즘같은 세상에 간첩이 광주 시민들을 선동하여 국군이 진정시킨다는 내용이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한 대목이었다.

궁금하지만 방법이 없었고 소위 머리에 피도 안 마르게 기껏자 무슨 소용일까 두 달이나 자났을까. 호남 말투의 청년이 일자리를 구했는지 잘 곳이 없다며 하숙을 하였던 때였다.

광수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모친께서 흔쾌히 허락하시고 제법 활달하게 생긴 청년이 간상'씨와 룸메이트를 하면서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다.

그때 몰랐다. 밤마다 흐느끼며 잠이 드는 이유를, 그리고 새벽이면 자다 깨도 마지 않는 수성전을 받은 것 마냥 휘적거리면서 맛있게 먹던 정부미 밥과 몇 가지 안 되는 반찬에 흡족해 하던 표정을, 시간이 지난 태백 특유의 추운 겨울날씨가 문고리에 손이 쩍쩍 달리면서도 귀찮은 표정하나 없이 걸은 안 하던 탕관의 광부생활을 하던 그 지금쯤 어디에 살아있다면 60대 초반의 중년이 되었으리라. 나중이야 알았다.

광주의 참상을 뒤로하고 탈출한 채 누가 알까 두려워 깊은 탄광까지 숨든 것을 두고 온 가족들이 사무치게 그리고 당시의 공포가 두려워 아무런 표시도 못 내며 숨죽여 울던 그의 심경을,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지금의 미안마 시대 이상으로 국민을 지키려고 국민이 모아준 돈으로 산 총으로 국민을 사살한 최악의 역사였다.

그런 자가 외국도 아닌 자국민이며 그 원인이 몇몇 인간들의 권력욕에 눈이 멀어 아나고 딱 잡아떼도 되는 세상인 것을, 40년 동안 뭐하다가 지금 와서 진상규명이네 유해발굴이네 할까.

5월 18일 아니면 못 꺼낼 말을 물어뵈다가 뉴스의 한 대목을 위해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듯 꺼내야 할까.

그리고 3개월, 교정은 한여름 폭염으로 그늘진 곳을 찾는 게 당연한 계절이었다. 여름방학이 오기 전 학교 분위기는 아수선하기 그지 없었고 마치 할당받은 학교의 방침에

따라 학급별 몇 명씩은 차출되어 군사교육을 받고 오면 아래저래 특해도 주어진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평소 교사한테 담벼락 학생부터 일부가 어느 날 사라졌다. 그리고 이듬해 반쯤은 낮이 나간체로 등교 했고 하란 공부는 안 하고 밤낮 없이 수면제만 먹고 자는 게 일과였다.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가끔씩 혼자 웅얼거리는 노래 가사에 의미를 알게 됐다. 때로는 대로 맞고 주는 대로 먹자. 농담인 줄 알았던 그 소리가 같은 반 급우의 처절한 상처였던 것을, 이렇게 군부독재는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영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 상흔을 지우지 못하고 명은 모습으로 그늘에 웅크린 이들은 지금도 셀 수 없이 많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나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더불어 민주주의의 보금자리도 지금의 아방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다.

지금 와서 국민의 힘이 참선했다고 대단한 뉴스 마냥 연일 보도되는 모습에 이연실 색이다.

지금까지 뭐하다 북한 소행이니 마네하다가 국민 반발로 표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일까. 역사는 모두에게 공평하다. 한 만큼 대우받는 것이요 당대에는 대가를 치르지 못하면 후대에 가사리도 끝을 보게 된다.

필자가 광주민주화운동의 탈출 민과 동거하며 느낀 점이나 동급생이 급우들의 희생을 대신해 삼정교육대를 다녔을 일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다.

필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본질을 떠나 어실론 에피소드를 논하는 건 백날 누구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을 미시어구로 써봐라 직접 체험한 감각 보다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지난 일이나 진상규명 잘하고 유해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한 맺힌 이들이 더 이상 구원을 떠돌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 많은 희생자를 한 두 명이 사살하고 때리고 총칼을 휘둘렀을가.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다.

귀신이 고향 노릇 아닌가.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가해자의 양심선언이 중요하다. 이미 지난일이요 상부의 명령에 복종한 죄밖에 없지만 지금 와서도 침묵하면 묵시적 인정 즉 공범이 된다.

보따리 풀면 가장 쉬운 일을 들고 돌아 41년이 지났다. 그러다 사과나 고백조차 못하고 명을 다한다면 그뻔 어쩔 것일까.

모든 게 때가 있다. 다음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다. 자비로 이 땅에 축복을 주시는 부처님 광주민주화운동 가해자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소서....

덕암/김근식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김포시 GTX·서울5호선 범시민 서명운동 10만명 돌파

정하영 시장 '국토부, 일부 열차 서울 연장 추진' 보도 관련 "시민 모두의 뜻은 GTX-D 원안사수, 서울5호선 김포연장뿐"

김포시의 'GTX-D 원안사수 서울 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6일 오후부터 시작된 범시민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참여가 몰리면서 열흘 만에 10만 명을 넘긴 것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16일 오전 기준 온라인 80,541명 오프라인 23,456명 총 103,997명이 서명 참여로 GTX-D와 서울5호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표출했다.

김포시는 지난달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2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공청회에서 GTX-D 김포~부천 노선 축소, 서울5호선 미만영 안을 발표하자 20만 명 이상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 확정 고시 전 법률에 정해진 시도지사 의견수렴 절차를 위해 시민서명과 그동안의 의견을 모두 모아 24일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최종 확정되기 전에 법률로 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연히 경기도지사도 협의를 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가 원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원안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포시는 현재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3일까지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을 계획이다.

김포와 인천검단지역 주민들은 공청회안 발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GTX-D 강남직결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김포검단시민교통연대 등 단체들을 결성하고 국회 기자회견, 국토부 항의방문, 1인 피켓 시위, 여의도 차량행진, 촛불 집회 등을 이어오고 있다.

정하영 시장과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 시의장,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도 지난 10일 시민의견 청취회에 이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포 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또다시 거부된다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50만 김포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강력한 직접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직접적인 행동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포와 부천만을 잇는 노선은 문제가 있다며 "전향적 검토를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은 시민들의 힘으로 행정과 정치권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 힘을 끌어모아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면서 "김포 안에서의 연대는 물론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로 GTX와 서울5호선 원안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시장은 16일 한 일간지의 'GTX-D 일부 열차의 서울 여의도나 용산역 연장운행 방안 추진' 보도와 관련 "립서비스'나 '장릉 특'이니 직원 막말로 모자라 또다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청회 안이 얼마나 졸속이었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도가 맞다면 국토부가 스스로 전면 재검토의 당위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경기도와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가 제출한 GTX 노선은 단 하나뿐"이라며 "어쨌든 여의도나 용산 환승안을 흘리면서 국민들을 우롱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정동희/기자

이낙연 前당대표, 민생투어 김주영 의원 제안한 '너도 함 타봐라' 챌린지 동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가 김포시민들의 출근 지옥철을 경험하고자 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탑승하고 국회로 출근했다.

김포는 시민들이 직접 '너도 함 타봐라' 챌린지에 나설 정도로 교통난이 심각하다. 이에 김주영의원(김포시갑)이 김포시민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길 바라며 이낙연 전 대표에게 챌린지 참여를 제안했고, 이 전 대표가 이에 응답해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장기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탑승했다.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박상혁 의원(김포시을), 정하영 김포시장,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함께했다.

김포는 인구 50만에 달하는 데도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 단 2량짜리 경전철 김포골드라인' 뿐이다. 출·퇴근시간대 혼잡률 285%로 최악의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은 버스만 한 객차 2량에 불과한 데다, 지하 40미터 승강장 역시 두 량에 맞춰 건설돼 추가 확장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날 김포골드라인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출퇴근이 어렵다. 강남까지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사람이 많이 타는 풍무역에서 다시 타볼 것"을 제안했고, 이 전 대표와 김주영 의원 등은 시민의 의견을

수용해 풍무역에서 내려 재탑승하려 했으나 출근 인파로 인해 열차를 놓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챌린지 동참 직후 "김포시민들의 고통을 더 의면해서는 안 된다"며 "날마다 두 번씩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건 안 된다. 교통 복지 이전에 교통 정의에 관한 문제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인구 50만 도시에 서울 직결노선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서라도 서울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GTX-D 노선과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GTX-D, 김포-부천시'가 발표된 후 서부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경기도는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잇는 68km 노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광역교통 2030' 계획에 들어 있던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아예 삭제됐다.

김주영 의원은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 개선과 김포의 만성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GTX-D 원안 유지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고양시 이재준 시장, '정부차원의 민주화운동 고문후유증 지원 사업' 촉구

고양시는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을 맞아 민주화운동 고문후유증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시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에는 고문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이재준 시장은 지난 2014년 경기도의원 시절, 도정질의를 통해 고문후유증을 겪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경기도의료원의 무료치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 최초로 '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민주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초 지자체로서는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이재준 고양시장은 "다행히 행안부가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피해자들 상당수가 고령이라 대책이 시급하다"며 "국회 행안위에 회부중인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 시장은 "민주주의는 완벽한 가치이지만 절대 완성형이 될 수 없다. 잠시만 물을 주지 않아도 금세 시드는 화분과 같다. 민주주의는 추모의 대상이 아닌 일상이며 우리 곁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늘 살피고 보듬어야 한다"며 "고양시는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화운동 기

념행사과 더불어 시민대상 민주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5월 18일부터 6월 15일 까지 약 한 달을 민주화운동 기념기간으로 정했다. 5월 18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시작으로 6월 10일부터 12일에 민주화운동역사 특별 전시전, 6월 14일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개관행사와 민주화운동 공동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6월부터 11월까지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교육과 현장탐방을 소규모 대면 및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15일 SNS(유튜브)를 통해 "또 다시 5월... 아직도 과거의 아픈 기억이 반복되는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뤄낸 2021년의 민주, 자유, 평



화...시대의 아픈 역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닌 그 시대를 온 몸으로 싸워낸 사람들에게 대한 진정한 감사와 삶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지원으로 깊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관련 동영상도 함께 게재한 바 있다.

한영기/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계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7)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편집국: 02)2612-2959 팩스: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영등포구, 주민기술학교 사업 3년 연속 선정...누적 2억 규모로 키워

올해 3년 연속 선정 쾌거... 예산 6천만 원 확보로 누적 2억 원 투자 예정

영등포구가 올해 들어 3년 연속으로 사회적경제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한 주민기술학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민기술학교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수요 기반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전문 경력을 갖춘 지역주민 중심으로 꾸린 멘토단과, 은퇴자 및 청년 등으로 이루어진 주민 수강생이 접수, 청소, 방역 등의 교육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기술 교육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립 주체가 되는 것이 주민기술학교 사업의 취지다.

영등포 주민기술학교는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차다. 올해 선정결과 6천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됐으며, 2019년부터 확보한 예산 규모는 누적 2억 원에 이른다. 이로써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사회적경제 분야에 선도적 성장을 이어나갈 기반을 확

실히 닦고 있다.

올해 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망 구축하기 위한 '홈케어 통합관리사업단'을 새롭게 운영한다. 돌봄 관련 서비스의 유기적인 매칭을 도모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과 청소 등 새로이 일상화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형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뿐 아니라 ▲노노매기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가가호호돌봄센터 등 10여 개 유관기관이 함께 힘을 모았다.

서울건설교육기능학원, 집키미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구 목공교육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청소교육장 등 다양한 거점공간을 활용해 이론·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방역 소독 심화과정, 가전, 청소, 접수 리심화 교육 등이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주민기술학교 사업의 3단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 워즈 은상 수상 등 여러 우수한 성과를 내며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서울 자치구 중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주민기술학교를 통해 재능 있는 지역 주민과 지역 내 생활기술 수요가 함께 어우러져 지역에서의 생산과 소비 구조가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 창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노원구, 재활용센터에서 착한 소비하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하세요

상계 1동에 세 번째 재활용센터 개관, 자원순환의 거점 공간 마련

서울 노원구가 지역 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생활 속 재활용 문화를 확산을 위해 상계동에 재활용센터를 개관한다.

상계 재활용센터는 노원구의 세 번째 재활용센터로 상계1동 수락산역 인근 행정복합타운에 조성되었다. 연면적 621㎡의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대형 가전제품 전시 판매와 수리실과 세척실을 갖추었다. 2층은 대형 가구, 3층에는 소형 가전·가구와 생활용품이 전시 판매된다.

상계 재활용센터는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조명과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전시 공간을 배치하였다. 기존의 재활용센터가 가진 낡은 이미지를 벗고 일반 기업 매장과 닮았는 쇼피 공간으로 꾸몄으며, 재활용품으로 만든 예술작품도 전시한다.

노원구는 작년 재활용센터 1관(공릉2동)과 2관(중계1동)에서 총 8,358개의 물품을 수집하고 7,356개를 판매하였다. 상계동 3관의 추가로 물품의 수집과 판매를 활성화해 더 많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원구 재활용센터는 가전제품 6개월, 가구류 1년의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형 제품은 배달, 설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노원구 재활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검색하면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정보와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원구는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당도 지역과 노원역 지하상가 위치한 '되살림 가게'는 의류, 생활용품, 잡화류 중 새 제품이나 양질의 중고물품을 기부받아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고 있다.

또한 상계5동에 위치한 '리사이클링 마켓'에서는 우유팩이나 폐전지 등을 모아서 가져오면 새 전지, 화장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5429kg의 종이팩과 145,318개의 폐전지가 수거되는 등 구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앞으로 중계동 재활용센터 2관을 리엔업사이클플라자로 확대 건립할 계획이다. 재활용 자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재활용)과 리사이클링(재활용)산업으로 자원순환의 저변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와 되살림 가게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며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친환경 녹색 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활용센터

최광수/기자

금천구립도서관, 독서토론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올해의 주제 '다시, 위로' 선정, 주제에 맞는 대상별 올해의 한 책 선정

2021 자치구 기반 독서토론 활성화 사업

금천구 다시, 위로

올해의 주제
'다시, 위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공감해주는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위로를 받고자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한 책

- 어린이** 위대한 깨달음 토머스 로버츠/키다리
- 청소년** 빨간 나무 손 탄 / 풀빛
- 성인** 위로의 그림책 박재규/지콜론북

금천구 한 책 운영기간 : 2021년 5월 ~ 11월
#북큐레이션 #토론회 #대출 스탬프투어 #독서퀴즈 #작가와와의 만남

금천문화재단은 금천구립도서관에 1서 5월부터 11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주제 도서를 선정해 '함께 읽고, 이야기하고, 경험하는' 2021년 서울시 자치구 독서토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서울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구별 구립도서관은 올해 서울도서관이 선정한 주제 '다시, 위로'에 자치구별 소주제를 주민들과 함께 정하게 된다.

이에 금천구 공공도서관 컨소시엄(대표 도서관 독산도서관, 이하 금천구 컨소시엄)과 주민협의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주제는 '다시, 위로'다. 이와 함께 주제와 관련해 읽을 '올해의 한 책'으로 어린이 부문 '위대한 깨달음'(토머스 로버츠/키다리), 청소년 부문 '빨간 나무'(손 탄 / 풀빛), 성인 부문 '위대한 그림책'(박재규/지콜론북)을 각각 선정했다.

금천구립도서관(독산, 가산, 금나래, 시흥) 및 작은도서관(책담샘숲

속, 책이든거리, 미래향기, 참새) 총 8개관으로 구성된 금천구 컨소시엄은 5월부터 11월까지 올해의 한 책 북큐레이션, 독서토론회, 대출 스탬프투어, 독서퀴즈, 작가와의 만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올해의 한 책은 많은 구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권을 구매해 비치할 예정으로, 각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금천구 컨소시엄 대표도서관 담당자는 "다시, 위로라는 소주제에 관련된 도서 세 권을 주민협의회를 통해 선정했다"며 "코로나19를 겪으며 느끼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공감해주는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금천구립독산도서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성/기자

서대문구,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이용권 신청하세요"

서대문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에너지 바우처(복지상품권)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가구원 중에 △노인(1956. 12. 31. 이전 출생) △영유아(2015. 1. 1. 이후 출생)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가 있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다.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장도 지원 대상이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갖고 이달 2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작성하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으로, 겨울 바우처는 올해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으로 낼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96,500원, 2인 가구 136,500원, 3인 가구 170,500원, 4인 이상 가구 191,000원이며 '한 번' 지원된다.

조상순/기자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 ~ 12월 31일

신청대상
국·공·민·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있는 가구

바우처 금액
연 1인 가구 96,500원, 2인 가구 136,500원, 3인 가구 170,500원, 4인 이상 가구 191,000원

사용안내
신청서 접수 후 신청기간 동안 신청금액의 50% 이상 사용 가능
신청서 접수 후 신청금액의 50% 이상 사용 가능
신청서 접수 후 신청금액의 50% 이상 사용 가능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강동구, 엔젤공방허브센터의 지난 1년을 돌아보다

14일, 개소 1주년 기념 엔젤공방 대표작가 전시회 및 운영자 간담회 개최

강동구가 18일까지 엔젤공방허브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엔젤공방 대표작가 전시회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기념행사를 연다.

성안로에 자리 잡은 엔젤공방허브센터(연면적 796.40㎡)는 지하에는 다목적실·랩실·소회의실이, 지상 1층에는 엔젤공방 및 사회적경제 홍보·전시존이, 지상 2층에는 엔젤공방 공동 교육·체험장·1인 작업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5월 14일 개소한 이래 엔젤공방을 성장, 발전시키는 허브 역할과 엔젤공방허브센터가 사회적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맡아왔다.

엔젤공방은 강동구가 2016년부터 성내동 도서관과 통학로 주변의 변종업소를 건어내고, 그 자리에 공방을 입점 시켜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적경제 방식의 일자리를 창출한 강동구의 대표 사업이다. 인형, 커피·목공예품·케이크·향초 등 매력 넘치는 25개 업종의 공방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며, 성안로를 걷고 싶은 문화거리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구는 개소 1주년을 맞아 엔젤공방 허브센터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



고, 앞으로의 발전을 염원하는 기념행사를 연다.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엔젤공방 대표작가 20여명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불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엔젤공방허브센터에 있는 성안로는 청년들이 모이

기 시작하면서 지역 상권 분위기도 활기가 더해졌다. 그 구심점에 있는 엔젤공방허브센터가 어느덧 1년을 맞이하여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도 공방 특화 문화거리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부평구, 구민 위한 찾아가는 마음상담실 운영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찾아가는 마음상담실

대상
부평동·십정동 지역주민 중 정신건강상담이 필요한 성인 누구나

일시
매월 둘째 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 화요일: 십정 1동 행정복지센터
· 수요일: 십정 2동 행정복지센터
· 목요일: 부평 3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방법
1. 온라인 접수
- 오른쪽에 있는 QR 코드로 상담 접수!
2. 전화 접수
-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032-330-5602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힐링키트와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부평구보건소가 17일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부평·십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생명사랑 마을공동체 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심리·경제적 취약지역이면서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주민참여형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십정1·2동,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마음상담실은 십정1·2동, 부평3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십정1동), 수요일(십정2동), 목요일(부평3동) 오후 2시~5시에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QR코드 활용 온라인 및 전화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오승현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찾아가는 마음상담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정규직 전환 74%”... 마포구 검증완료 청년 인턴 26명 취업문 뚫다

마포구 청년취업 인턴사업 참여 우수 인재 정규직 전환, 청년 취업난 극복 지원

마포구는 ‘마포형 청년취업 인턴사업’을 통해 채용된 35명의 인턴 중 2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당초 목표치인 70%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구가 추진한 이번 인턴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구비 3억2500만원을 투입해 지역 내 22개 기업, 35명의 청년이 참여한 사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장기 경기 침체 및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직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이전부터 구는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인턴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주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10명 내외의 인턴을 선발해 5명 내외가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과거와 달리 민간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내 네트워크를 보유한 단체 및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성장 유망성이 높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마포구 소재 5인 이상 중소기업



기업에 인턴 1인당 월 230만원씩 3개월, 정규직 전환 시 1개월 추가 지원하는 방식의 충분한 지원금 지급으로, 기업이 원하는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마포구청장이 서한문을 발

송, 참여 기업에 감사의 인사와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참여 기업과 인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사업장 지도·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기회도 가졌다.

그 결과, 22개 참여 기업 중 19개 기업이 채용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청년 취업 인턴 참여자 중 26명이 회사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업 종료에 따른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참여 기업 중 21개 기업이 해당 사업에 만족한다(95%)고 응답했으며, 인턴 지원 기간의 확대(68%)를 개선 요청사항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스타트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사업으로 기존 계획보다 앞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이번 인턴사업에 참여해준 모든 기업과 청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소중한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마포구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성동구,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나선다

서울 성동구는 왕십리역 주변 행당동, 도선동, 흥인동, 하왕십리동 일대 218,000㎡ 규모의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 재정비에 나섰다.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1) 해야함에 따라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은 2016년 재정비된 이후 광역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비 시기가 도래, 지난해 8월 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이 심의가결되어 체계적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2030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서울생활권계획',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상위 관련 계획이 변경되고 경전철 개통(예정), 개발 움직임 확산 등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상지는 2025년 개통 예정인 동북

선 경전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노선이 지나는 컨터플 역세권의 교통요지 2) 이자 '2030서울플랜'의 중심지 체계상 광역중심3) 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광역중심 위상에 걸맞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역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 상업·문화, 관광 등 중심기능 입지 강화, 소외아트를 증축 등 대규모 부지 여건변화에 따른 관리, 지역환경 개선, 기반시설 관리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 운영에 온 지구단위계획의 정확한 현황진단을 통해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왕십리역세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4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달 4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구상에 착수하였다.

2022년 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목표로 계획을 작성하고 주민의



견 수렴을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왕십리역 일대가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거점으로서 성동의 중심을 뛰어넘어 서울 동북권 신성장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로봇사업 우수 기업 발굴을 위한 'SMART X-LAB 9기' 개최



2021 05.17-06.30
SMART X-LAB 9기
로봇공모전

개요
공모분야: KT 및 현대로봇(스) 로봇사업과 연계 가능한 제조업계 혹은 기술업체
* 로봇·서비스로봇, 휴먼로봇, 배리스타로봇, 케어로봇(시니어케어), 원격로봇
공모대상: 공모분야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고교 및 기존 사업자등록 완료된 개인 이내 기업 3개사

신청
신청기간: 2021. 5. 17(월) ~ 6.30(수) 16시까지 ※정수시간 영수
신청방법: 이메일 지원 (jjs@ccel.kr)
제출서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참조
지원접수: 서류평가 - 기업인터뷰 - 발표평가 - 선정사상

혜택
시상 및 상금: 총 4,500만원 규모 상금 및 상장
사업의 지원: 총 5천만 원 범위 내 사업화 자금 지원
후속연계: KT 조성 중인 광역 S밸리 입주 우선권 부여
* KT 로봇사업 연계 상용화 우선순위 부여
* 현대로봇(스) 로봇 서비스 탑재 등 사업 연계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록 (스타트업 혜택)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공간 지원, 투자유치 검토 (IR 기회 제공) 등 사업 프로그램 추진

문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장기선 매니저 T. 032-458-5025-6 (jjs@ccel.kr)

주관: kt 현대로봇(스) 현대중공업(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KT, 현대로봇(스) 및 현대중공업(주)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후원하는 'SMART X-LAB 9기 로봇 공모전' 참여기업을 5월 17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로봇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가 가능한 로봇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최종 선발된 아이템은 KT·현대로봇(스)와의 연계 상용화, 탑재 등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로봇제조, 로봇서비스 등 로봇기술 분야로 KT와 현대로봇(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류 및 발표 심사 과정을 통해 3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로봇전문가 데니스 홍 교수의 컨설팅 기회도 제공된다. 최종 선정

된 기업에게는 KT상, 현대중공업그룹 로보틱스상,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상 수상과 함께 총 4,500만원의 상금과 5천만원 범위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선발된 스타트업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으로 등록되어 입주공간 지원, IR기회 및 투자유치 검토 등 기회가 제공되며, KT가 조성중인 광역 S밸리 입주 우선권 추천 등의 후속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김석준 센터장은 “성장중인 로봇 산업시장에서 우수한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파트너기업인 KT와 현대로봇(스)와 연계하여 로봇분야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중남기자

“How to 여성창업!?” 인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여성창업가 육성 상담 프로그램

인천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창업에 관심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성 창업 상담 프로그램 'How to 여성창업!?' 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성 창업가 발굴과 육성을 통해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남동구 내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예비 및 초기 창업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로, 개별연락 후 일정을 조율해 6월부터 1:1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센터장과의 1:1 맞춤형 창업 상담 이후에는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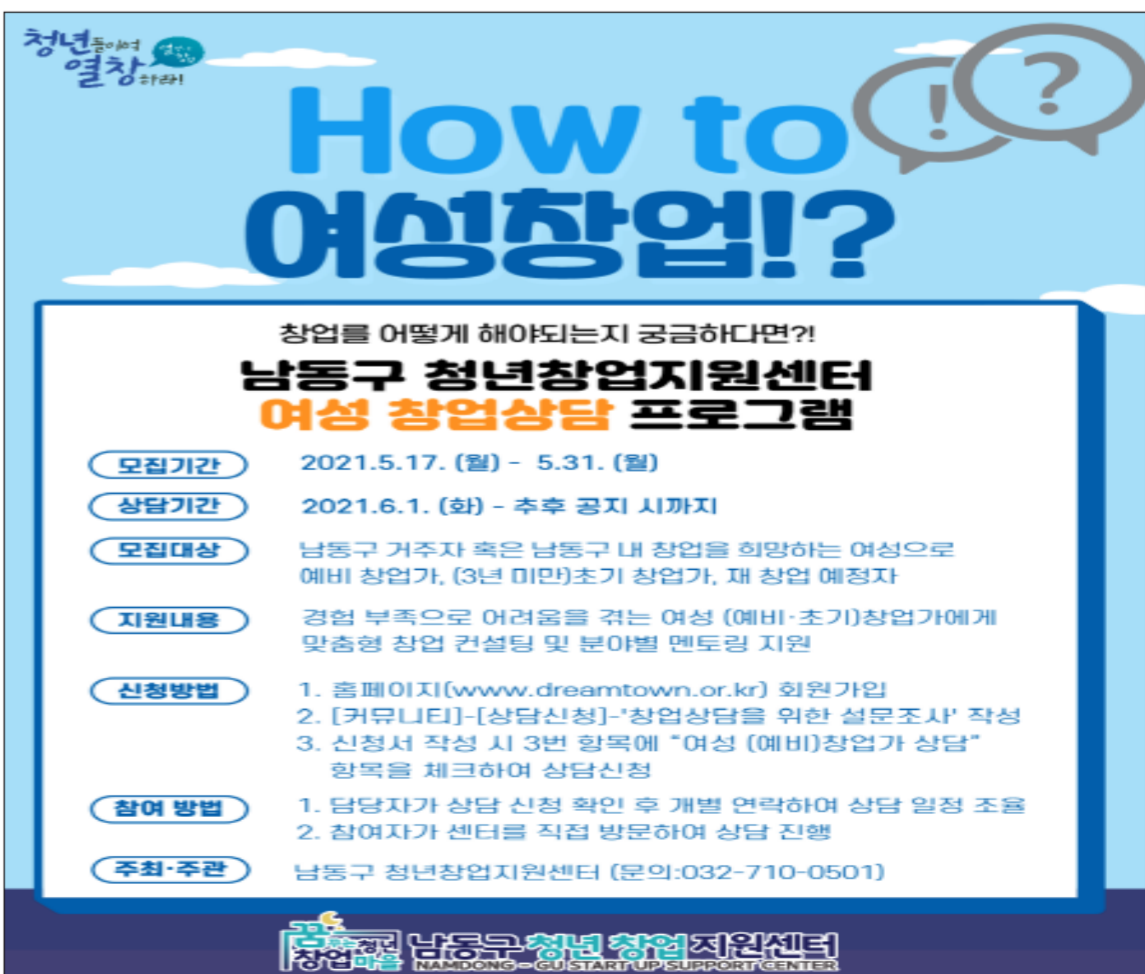
상담 지원을 주관하는 정은호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장은 “이번 상담 지원을 통해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 취약계층 여성의 창업 역량 강화를 도모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난 2년 동안 총 매출 실적 45억 원, 일자리창출 121명을 달성했으며, 현재 전체 입주 기업 14곳 중 7곳이 여성 기업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여성 창업가로서 도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담 신청은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변재현기자



청년 열망
How to 여성창업!?

창업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다면?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여성 창업상담 프로그램

모집기간 2021.5.17. (월) - 5.31. (월)
상담기간 2021.6.1. (화) - 추후 공지 시까지
모집대상 남동구 거주자 혹은 남동구 내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예비 창업가, (3년 미만)초기 창업가, 재 창업 예정자
지원내용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예비·초기)창업가에게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분야별 멘토링 지원
신청방법 1. 홈페이지(www.dreamtown.or.kr) 회원가입
2. [커뮤니티]-[상담신청]-[창업상담을 위한 설문조사] 작성
3. 신청서 작성 시 3번 항목에 “여성 (예비)창업가 상담” 항목을 체크하여 상담신청
참여 방법 1. 담당자가 상담 신청 확인 후 개별 연락하여 상담 일정 조율
2. 참여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
주최·주관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문의:032-710-0501)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NAMDONG-GU STARTUP SUPPORT CENTER

서울시, 잘못 표기된 외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바로 잡아주세요

서울시 외국어 표기 기준에 맞지 않는 표기, 오타, 오기 등 관광안내표지판 점검

서울시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잘못 표기된 외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일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현장점검단'과 한국 거주 외국인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류 표지판 신고제'를 함께 운영한다.

'오류 표지판 신고제'는 서울시민, 서울거주 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점검지역은 서울시 전역이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관광안내표지판(5종)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네이버폼에 접속해 표지판 사진과 위치 정보 등의 내용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5.17부터 6.15까지이며, 오류 표지판이 다수에 의해 신고될 경우 최초 신고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표기 오류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 대해 1건당 1만원, 총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아울러,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현장 점검단'을 통해서 서울 관광명소 10개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외국인 현장점검단은 영어권 10명, 중화권 10명, 일어권 10명 등 총 30명을 모집하며, 서울 관광명소 10곳 중 배정된 2곳에 대해 점검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서울사랑상품권을 활동비로 지급한다.

모집기간은 5.17부터 5.23까지이며, 활동기간은 6.1부터 6.15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 현장 점검단 운영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오류 표지판 신고제' 및 '외국인 현장점검단'을 통해 접수된 표지판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표기 오류 여부를 판정하며, 오류 표지판에 대해서는 긴급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관광안내 표지판 점검은 서울시 외국어 표기 기준에 맞지 않는 표기, 오타, 오기, 외국어 표기 미기재 및 누락 등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품격 있는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태원, 잠실 등 서울시 6개 관광특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접수된 400건 중 최종 224건에 대해 표기오류로 판정하고 긴급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서울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 관광안내표지판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서울관광도약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하는 캠페인을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합동점검

6.2일까지, 무허가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 집중점검



대전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특별반(5개반 9명)을 편성하여 동구 등 5개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 대해 시·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대전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리실태

를 점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 소외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고정화/기자

수원시 권선구, 2021년 상반기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수원시 권선구는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관내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유통관련업소 시설기준 △운영자 준수사항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반 시 현장계도,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하며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 운영중단 명령 등을 진행한다.

서경보 권선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유통관련업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현재 실시중인 지도·점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논산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무단점유 단속 강화

논산시가 공유재산 공정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는 관내 분포한 공유재산 중 시유지 29530필지, 건물 688건 및 도유재산 토지 844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대부 목적 외 사용, 제3자 양도,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등 불법사항 확인 및 유류재산 발굴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10월까지이며, 각 실·과·소 및 읍·면·동장을 필두로 조사반이 지적공부,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소유권, 면적, 권리관계, 지목 일치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 검토 이후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 무단 점유 여부, 공유



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발굴 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사용허가·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김포시, 특정도양오염관리대상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집중점검

김포시 환경지도과는 안전한 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해 총 용량 2만 0 이상인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육내·외 탱크)을 보유한 주유소, 산업시설 등 관내 특정도양오염관리대상 사업장 174개소에 대해 설치(변경)신고 준수, 토양오염시설 설치 및 적정관리,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 실시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은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말하며,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대기환경오염물질이다.

점검대상은 주유소 등 66개 사업장이고, 중점 점검사항은 ▲신고된 유증기 회수시설과 설치된 시설의 일치 여부 ▲휘발유 저장탱크 및 자동차 주유기의 유증기 회수시설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유증기회수설비 정기검사 및 압력 감쇄·누



설 검사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지도·점검결과 결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부적정운영 사업장은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김포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상주시,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방역실태 점검

2인 1조 특별점검반 구성해 방역수칙 이행사항 집중 확인

상주시는 5월 14일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실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노인시설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통해 소독 및 방역 실시, 외부인 출입제한, 손 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사항을 집중 확인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고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양평군, 경기지역화폐 '양평통보' 가맹점으로 등록하세요!



양평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양평통보의 결제를 위해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의 역의 유출과 지역자금 규모의 증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역점 발행 중인 양평통보는 그간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BC카드 가맹점과 연동해 사용 제한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 절차가 의무화

됨에 따라 양평통보의 결제를 위해서 사업주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이 필수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양평통보 가맹점 등록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오는 21일까지 가맹점 미등록시 양평통보의 결제가 제한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현재 우리군은 약 55%에 이르는 군민이 양평통보를 이용하고 있다"며, "양평통보의 원활한 사용과 지역일자 매출증대를 위해 가맹점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상생협력 지속'

이달 28일 자매도시 신안군 방문해 '하남시의 섬'도초도 표지석 제막식 참석

하남시는 올해 2분기 국제화추진협의회 정기회의를 지난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정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상호 시장과 방미숙 하남시의장, 국승현 협의회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 참석했으며, 협의회 위원 22명은 줌(zoom)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남문화원 이상범 사무국장이 '이성산성 정체성 찾기'를 주제로 국내·외 교류를 위한 하남의 역사와 문화를 발표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시 하남의 중심문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들은 ▲신안군 하남시의 섬 '도초도' 표지석 제막식 방문 ▲하남시-영주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협의회는 하남시의 섬으로 지정된

'도초도' 표지석 제막식 참석을 위해 이달 28일 김상호 시장과 방미숙 의장, 협의회 임원 및 권역별 향우회장 등이 신안군을 방문하기로 했다. 방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다.

시는 신안군과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해 도초도를 하남시의 섬으로 지정하고 시화인 은방울꽃을 모티브로 한 표지석을 제작, 지난 2020년 12월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 경북 영주시와는 지역축제 교류 및 관광교류 활성화,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학생 및 민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오는 6월 중 2차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

김상호 시장은 "올해는 경북 영주시와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신안군 도초도 제막식 참석, 국내자매도시 및 교류협력도시와 협업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



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어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문해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성인문해강사교육 심화과정' 온라인 운영

평택시 평생학습센터는 오는 6월 4일부터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성인문해강사교육 심화과정'을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통해 개설하여 운영한다.

성인문해교육이란 한글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및 소외계층 등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글을 읽고·쓰고·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이번 심화과정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문해교육 및 생활문해 교수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며, 성인문해 기본과정 수료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총 5회, 15시간으로 진행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의 문해교육 발전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평택시 문해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남주/기자



시흥시, 차일드 퍼스트(Child-First) '초등돌봄 통합 및 특성화 추진'



시흥시가 '차일드 퍼스트 시흥'을 주제로 초등돌봄사업 통합과 특성화를 추진한다.

'차일드 퍼스트 시흥'이란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책에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시흥시 아동 정책 의지로,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에 전념하고, 아이들이 올바른 인

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이 목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초등학교 휴교 및 온라인 재택 수업으로 돌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안정적인 초등돌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흥시는 시가 추진 중인 마을돌봄사업과 교육지원청의 학교돌

봄사업을 통해 시 전역 117개 기관에서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 시흥시 초등학교생 31,890명 중 4,113명(약 13%)이 공적 초등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시는 통합적인 초등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공적 초등돌봄 신뢰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안심할 수 있는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아이누리돌봄센터 6개소를 12개소로 늘리고, 돌봄나눔터 8개소를 14개소로 확충한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도 확대한다. 지난 12월 개소한 남부권 공립형지역아동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흥교육지원청과의 상호협력 강화로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초등돌봄교실을 확보하고, 안전한 초등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공적 초등돌봄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시흥형 초등돌봄 종사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인 돌봄 인력 보수 교육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는 아동에게 올바른 지도를 하고, 아이들은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이들과 학부모 요구사항,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초등돌봄 모델을 개발해 이용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장구로 활용하며 공적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재용 아동보육과장은 "학부모가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특성화된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안성남 구리시장, 올해 첫 번째 채용박람회 개최... '현장 채용 51명'

코로나19 극복, 행복한 구리, 행복한 내일(Job), 25개 구인업체와 220명 구직자 참여



구리시는 지난 13일 구리광장에서 '코로나19 극복, 행복한 구리, 행복한 내일(Job), 2021년 구리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 51명이 현장에서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침체 속 위축된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됐던 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구인업체에는 맞춤형 인재의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비손보, (주)에이스푸드, (주)휴본, (주)제이와이네트웍스 등 관내 및 인근 25개 업체가 참여하고 현장에 방문한 220명의 구직자 중 173명이 현장 면접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사전예약제를 통해 시간대별로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와 더불어

구직자의 대기시간 감소로 원활하고 안전하게 채용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구직자 51명이 현장에서 채용됐으며, 추후 통보와 업체별 2차 면접을 거쳐 추가로 채용될 예정이다.

안성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기회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역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교육 및 상담, 알선은 구리시 일자리센터, 구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만식/기자

최종환 파주시장, 울곡수목원 현장점검 나서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 14일 파평면 울곡리에 위치한 울곡수목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울곡수목원은 2008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올해까지 총 14년의 대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4일 정식 개원한다.

면적 34.15ha 규모로 자연 지형을 살려 조성한 21개의 식물주제원에는 한국특산 수종인 미선나무, 히어리 등을 포함한 1,358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생태학습장과 유아숲체험원에서는 생태학습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다. 기존 소나무림

에 조성한 구절초 치유의 숲과 임진강 일대 풍경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와 쉼터 등 다양한 산림 휴양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년 신규로 설치한 방문자센터에는 방문객센터, 안내소, 가족실, 의무실, 농산물판매장, 카페를 운영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오랜 시간을 들여 조성한 울곡수목원이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대자연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파주시 대표 산림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곧 있을 개원식 준비도 철저히 해줄 것"



을 당부했다. 시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울곡수목원 특별무대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광명시, 연대와 협력이 빛난 '광명형 코로나19 대응'

광명시가 연대와 협력으로 시민과 하나 되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 심리방역지원단, 시민 자율 방역, 광명핀셋지원, 희망나기운동본부 코로나19 STOP 기부 릴레이, 책 배달 서비스, 안양천 방역 쉼터, 광명전통시장 배달앱 '놀장', 등 '광명형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선제 대응하고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와 시청 전 부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심리방역지원단, 시민안전대책본부, 예방접종추진단 등을 적시에 꾸려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켜왔다.

또한 지난해 3월 관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고자 보건소에 현장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직접 선별진료소 현장에 뛰어들어 진두지휘했다.

"힘내십시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찾아다니며 격려하고 코로나19 극복을 다짐했다. 전통시장을 찾아 경기침체로 근심하는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전통시장 현장회의 등을 통해 골목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을 찾아 약사들을 격려하고 착한 임대인을 찾고 고마움을 전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고생하는 영업자를 찾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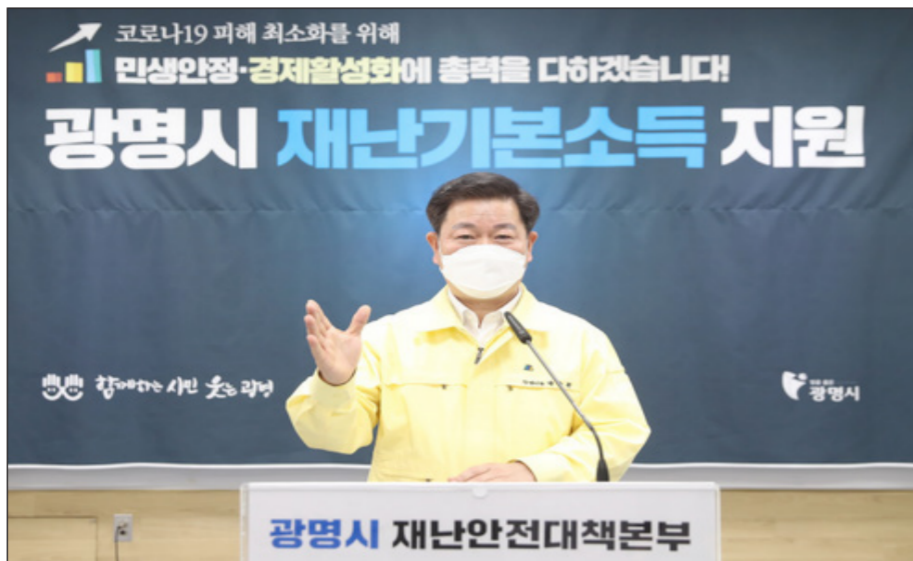
또한 시민과 함께 수차례 거리로 나가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 사회적거리두기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법인택시, 종교지도자, 시민안전대책본부, 각종 단체 등 시민들과 만나 코로나19 극복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시민과 함께 곳곳에서 방역활동을 펼쳤으며 올해 설 연휴에는 바쁜 일손을 보태고자 방호복을 입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하루 동안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며 검사 받는 시민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광명시는 오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광명시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시민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1월 21일 상황총괄팀, 접종센터운영팀, 접종시행팀, 이상반응관리팀 4개 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 26일 광명시보건소에서 첫 백신접종을 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광명시민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전



문인력,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명시는 현재(5월 14일 18시 기준) 2만1584명의 접종을 마쳤다. ▲보건소에서 노인·정신요양시설, 1차 대응요원, 특수교육·보육·보건교사,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필수목적 해외출국자 등 1465명에게, ▲요양병원, 의료기관에서 1961명, ▲위탁의료기관에서 4568명에게 접종했다.

또한 ▲예방접종센터에서 4월 15일부터 7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 1만3590명에게 접종했다.

광명시는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60~74세 어르신 4만8103명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돌봄종사자, 보건요원, 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관내 90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예약을 받고 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시민을 살뜰히 살피고 골목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70억여 원을 광명시민 1인당 15만원씩 신속 지급했으며 소상공인,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명형스마트 정책으로 전국 최초 전통시장 배달앱 인 놀장을 만들어 시민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광명사랑화폐를 목표액 87억원보다 453억 많은 540억 원을 발행했다.

올해는 지난 3월 입차소상공인 7,204개소에 각 50만원, 보편적 지원으로 4,814개소에 각 30만원을 지원했으며, 4월부터 대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1000개소에 1년간 보증료

1%, 대출이자 2%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억 원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1억5000만원, 경영환경개선사업 8000만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력 성장을 돕는다.

이외에도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지역 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주정차 단속유에 시간 연장, 저소득 한시 생계비 지원, 위기가정 지원 등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공공 분야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심리방역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한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있다.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검진 '광명시 마음온(溫)도'를 무료로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심층상담과 심리 검사를 통해 전문 치료까지 연계하고 있다. 또한 소득과 상관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1인당 최대 10만원(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마음건강 자가검진에 참여한 시민은 543명을 넘었고 이중 231명의 위험군을 찾아내 상담을 지원했다.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든 시민이 편하게 산책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안양천을 방역쉼터로 조성했다. 안양천에 잔디와 꽃을 심고 흔들의자 등 쉼터를 조성해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양천 안양교~금천교 구간 산책로, 데크 보행로, 보행계단 등에 수목조명, 불조명, 반딧불조명, 데크(바닥 및 계단)조명, 고보조명, 기형도 시인의 시화판을 설치해 밤에도 아름다운 안양천을 시민에게 선물하고 안양교~금천교 구간 산책로에 마사토를 깔아 산책하는 시민의 발을

편안하게 했다.

광명시는 지난 해 잇단 개학 연기로 집 안에 머물러야 하는 시민을 위해 공공도서관 공직자 모두가 나서 집집마다 책을 배달했으며, 2개월 동안 1만5114명의 시민이 5만3392권의 도서를 이용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4월 12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취약층인 입산부, 장애인, 생후 12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책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인 3권까지 소하도서관 담당자 이메일로 도서를 신청하면 2일 후 비대면 택배로 신청도서를 받아볼 수 있다.

광명시의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시민이다. 광명시는 자치, 안전, 문화, 체육, 복지, 위생, 환경 등 2118단체 8만9451명이 참여하는 범시민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대책본부는 시와 긴밀한 협력으로 감염증 발생 및 대응 현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수차례 캠페인 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광명시희망나기운동본부의 '코로나19 STOP 기부 릴레이'에는 지난해 2월5일부터 기업, 개인, 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했다. 지난해 기부릴레이는 총 254회까지 이어져 7억8천여만 원의 성금과 2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성품이 모였다. 올해는 88회의 기부로 2억 2천여만 원의 성금과 9천여만 원의 성품이 모였다.

광명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와 연계해 광명민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추진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1244 가구에 4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18개 동 270여 명의 자율방재단은 자발적으로 나서 공공장소 및 다중 이용시설, 취약지역 등에서 7900회가 넘는 방역활동을 펼치며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 4개월이 다 되어 간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것은 높은 시민의식과 시민 연대의 힘, 바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봉사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금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백신에 집중해야 할 때다. 광명시는 안전한 백신 접종으로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오산시, '이건희 미술관' 유치 나선다

오산시가 '(가칭)이건희 미술관'을 새로운 교육·문화·관광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산시 내삼미동 공유지에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17일 "고 이 건희 전 삼성회장의 '문화 기부'라는 훌륭한 뜻을 이어가면서 모든 국민들이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의 최적 입지는 오산"이라며 "오산시가 이 전 회장의 뜻을 살려 최고의 미술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유치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의 유족 측이 국립기관 등에 개인 소장 미술품 2만 3천여 점을 기증할 의사를 밝힌 뒤, 많은 국민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 또는 특별관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곽 시장은 오산시가 최적 유치가 될 수 있는 이유로 5가지를 제시하고, 오산관광단지 내 오산시 소유 부지에 결정만 난다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 시장이 제시한 첫째 이유는, 오산시 내삼미동이 수도 남부권 최고의 문화·관광단지로 조성되고 있고, 단지 내 오산시 소유 부지가 약 38,961㎡로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필요시 주변 토지로 확장할 수 있어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여 최단 기간 내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둘째는, 단지 내에 대한민국 최초

의 첨단 방식의 미니어처빌리지와 복합안전체험관이 오픈을 앞두고 있고, 드라마세트장도 구비되어 있어 미술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서 봉담-과천 간 고소도로 북오산IC에서 1km 거리 밖에 되지 않으며, 경부 고속도로, 전철, 고속철도 및 국도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이기 에 미술관을 찾는 국민과 관람객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다고 곽 시장은 강조했다.

넷째는, 한류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내삼미동 공유지에 미술관이 들어서면 인천 국제공항과 약1시간 거리에 있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곽 시장은 오산시 내삼미동이 수도권 문화벨트의 최적의 중심지로써 수도권 2,800만 명의 문화수요층을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곽 시장은 "수도권 사통팔달 중심의 위치에 있는 오산시가 고 이 건희 회장 컬렉션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이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면서 "'이건희 미술관'이 오산에 건립되어 전 국민에게 따뜻한 고인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안성시 보개면, 농가 모내기 현장 풍년기원 방문

5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모내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김광일 보개면장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김장원 보개농협조합장과 함께 관내 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풍년기원 등 농민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개면은 면 전체의 40% 이상인 1100여 가구가 벼농사 등(7500여 필지, 11,026km)에 종사하고 있어, 면에서는 매년 모내기 현장을 유관 기관과 합동 방문하여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는 등 모내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모내기 현장에 있던 농민은 "올해는 다행히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저수율도 괜찮아서 모내기 작업이 잘 이루어져 모두가 활짝 웃는 풍년이 되길 바란다"며 "면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돕고 해결하고자 적극 나서겠다"고 농민들을 격려했다.

최근수기자



죽전역 에일린의 뜰

경주시 김호진부시장, 대형마트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대시민브리핑

지역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경주점 6명 집단 감염,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과 경주시의 조치사항 등 전해

경주시 김호진 부시장은 16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주말 1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특히 지역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경주점에서 6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과 경주시의 조치사항 등을 전했다.

홈플러스에서는 15일 정육코너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1차로 홈플러스 직원 106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16일 식품부 직원 4명과 가전코너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16일 긴급 방역조치로 홈플러스 경주점은 소독완료 후 폐쇄조치되고 직원 84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자 추가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이후 영업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의 특성과 상황의 위급

성을 감안해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홈플러스 경주점을 방문한 시민들은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을 것을 문자를 통해 독려하고 있다.

일 현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조사가 신속히 진행중이나,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려 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시형 주차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덜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호진 부시장은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긴급한 조치에 따른 검체 조사 지연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감염 여부 확인이 현재 가장 시급한 상황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경북도, 해양수산활성화심포지엄 개최

해양생물 종 보존과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경북 해양수산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상북도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한 심포지엄에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임영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김정태 영덕부군수, 군의원, 대학교수, 지역 수산인 등이 참석하였다.

최근 경북의 해양수산은 기후 변화로 동해안에 난류성 해양생물의 우점화와 한류성 해양생물의 감소 등 여업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경북 동해안의 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생물 종 보존과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동해의 해양생물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실현방안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임영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 안용락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획조정실장은 '해양생물자원 보전 및 산업적 활용'을 발표하였다.

이어 김진구 부경대학교 자원생물

학과 교수가 '한국의 해양어류 분포도',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이 '해양수산 소재를 이용한 바이오산업 육성 필요성과 현황'을 발표하였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종성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황인서 해양환경공단 해양생태팀장, 차형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원환경식품부장, 박원규 부경대학교 자원생물학과 교수, 이종일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교수와 함께 '해양생물 종 보존과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참여인원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와 유튜브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동해안권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북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도출된 해양생물 종 보존과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정시책으로 적극 추진해 동해안 해양수산자원 관리와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경북 최초 전면 도입한 '영주시 콜체크인 출입관리'...영업자·이용자 모두 만족

경북 영주시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방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한 '콜체크인 출입관리서비스'가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경북 최초로 일반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3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한 콜체크인 출입관리서비스는 전화 한 통으로 출입자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세대와 관계없이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콜체크인 이용 실적은 20만 8천건(하루 평균 1만 3천건)으로 전화 한 통이면 출입기록이 저장돼 수기 방식의 개인 정보유출 문제와 허위 작성, 사용이 어려운 QR코드의 단점 등을 한 번에 해결해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시설관리 담당부서에서 직접 업소를 방문해 콜체크인 번호 사용법 설명, 방역수칙 준수 안내를 실시해 현재까지 3천100여개 대상 시설 중 대부분의 시설에 번호 배부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이용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서비스는 출입자가 지정된 전화번호(080-257-XXXX)로 전화를 걸면 '방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멘트와 함께 출입기록이 등록되며, 4주간 저장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통화료는 영주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가흥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4세)씨는 “입구에 콜체크인 번호를 붙여놔서 손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업주 입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출입관리가 가능해졌고 관련 이용료는 시에서 부담해주



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콜체크인은 수기명부 사용에 따른 불편과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방문자 정보는 감염병 관

김기현기자

봉화사랑상품권 서비스, 20일부터 5일 간 일시 중단

5월 20일~5월 25일 상품권 판매·환전, 앱 이용 충전·결제 서비스 중단

봉화군은 오는 5월 20일 0시부터 25일 오전 6시까지 지역화폐 '봉화사랑상품권' 전반에 대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해당기간 동안에는 봉화군 관내 21개소 금융기관의 상품권 판매·환전 업무, 카드 전용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한 충전·결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봉화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운영사인 한국조폐공사의 시스템 이전 구축 작업에 따른 조치다.

이번 작업이 완료되면 모바일(QR)·카드형 상품권 결제 속도 개선, 금융기관 등 관리자 페이지 웹 서비스 처리 속도 개선 등으로 사용자 편의가 향상될 예정이다.



군은 현수막 게시,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봉화사랑상품권 이용자와 가맹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봉화사랑상품권

한반식기자

(사)자연보호대구광역시북구협의회, 팔거천에 미꾸라지와 다슬기 방사, 하천 정화활동 실시

(사)자연보호대구광역시북구협의회(회장 이승호)는 5월 14일 팔거천 생태계 환경보전을 위하여 회원 40여명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팔거천에서 미꾸라지와 다슬기를 방사하고 하천 정화활동도 실시하였다.

하루에 모기 유충 1000마리 이상을 포식하는 모기 유충의 천적이라 하천바닥 진흙으로 들어가 산소 공급을 하여 수질개선도 시키는 미꾸라지와 하천 내 찌꺼기, 유기물 등을 먹어 수질정화를 하는 다슬기를 방사하였다.

또한, 하천 주변 쓰레기를 건져내는 등 하천정화활동도 병행함으로써 팔



거천의 생물 다양성 보전과 수질개선 및 깨끗한 친수환경을 조성하였다.

남궁영기기자

포항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 돕는 제도

포항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포항시 전 지역이 대상이며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시스템)로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나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방문 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아직도 확정일자 받으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세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신고대상: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 제2목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해당법규 위배 시 불요)

신고 의무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i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보증금, 제2조제2항 제2목

신고 대상: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i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대시민 홍보 등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사천바다케이블카, 안전사고 제로(Zero)를 향한 보이지 않는 구슬땀

제조사의 핫라인 서비스 구축·무인항공기(드론) 도입 등 혁신 추구



국내최초 바다와 산을 모두 오가는 총 길이 2.43km의 사천바다케이블카!

수채화 같은 한려해상의 쪽빛바다와 점점이 떠 있는 작은 섬들, 그리고 상쾌한 푸른 산까지 더해 매 순간마다 또다른 감동으로 마주한다.

즉, 환상적인 뷰 오감만족 여행이 가능한 것이 사천바다케이블카이며, '남해안의 랜드마크'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전체의 비경으로 입소문 났지만, 실제로 설계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안전이다.

선로 설계 시 1선식이 아닌 자동순환 2선식(Bi-Cable)을 적용하여 매서운 바닷바람에 대비를 하였으며, 각종 풍동시험을 거쳐 초속 22m 강한 바람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뿐만 아니라 순간 강풍처럼 돌발상황의 신속 대응을 위해 5개의 모든 타워에 풍향·풍속 계측기를 추가 설치하여 실시간 감지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낙뢰감지시스템 도입으로 갑작스런 낙뢰 등 기상악화를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강풍, 지진 해일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고 기상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과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내 케이블카 중 최초로 기상청이 주관하는 '2020 날씨경영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올해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안전사고 제로(Zero) 목표와 세계최고의 안전한 케이블카라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표적인 것이 제작사(LEITNER Co.)의 기술 이전 사업과 원격지원 서비스(Tele-service) 구축, 무인항공기(드론) 도입 등이 있다.

앞서 케이블카운영팀은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총 4억1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예비부품을 선구매하고, 이탈리아 현지 전문 엔지니어를 초청하여 캐빈 그립(Grip)부 관련 기술

이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150여명에 달하는 그립(Grip)부를 직접 분해하고 점검하며 구조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케이블카 결함 발생 시 신속히 조치로 문제 해결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1천9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 제작사(LEITNER Co.) 원격지원 서비스는 케이블카 시스템이나 통신장치 오류 등 긴급정비 상황 발생 시 실시간 시스템 점검과 기술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드론)를 도입하고 조종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타워나 선로 점검, 관측 등 업무 능률성을 높이며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비상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난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법! 때문에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신속한 대처와 고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구조 시스템이나 재난 발생 행동 매뉴얼을 구축해 두고 있다.

이들테면 전력공급 불안정 및 차단과 같은 정전 상황에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는데 이마저도 원활하지 않을 시 비상엔진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삼중 대기하고 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케이블카 자체 해상구조팀과 육상구조팀이 긴급구조 활동을 전개한다.

해상구조팀은 자체구동이 가능한 해상구조캐빈을 이용하여 케이블카에 직접 접근하며, 육상구조팀은 구조용 캐리지 레일 장비를 이용해 선로를 따라 케이블카에 직접 다가가 탑승객을 구조한다.

실제로 해상·육상구조팀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듯한 가상상황을 만들어 자체 구조훈련을 하고 있으며, 관내 소방서와 협업을 통한 합동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태정 이사장은 "그 어떤 것도 결코 고객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시설 관리경영에 있어서 시민과 고객들의 생명을 필수적인 전제이자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며 안전관리 수준을 세계 최고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훈기자

산청군 포스트 코로나 대비...약초농가안정생산지원 나선다

6월4일까지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산청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약초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기 위해 수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7일 군은 오는 6월4일까지 약초생산안정기금을 활용하는 '2021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산청에서 약초를 생산한 조합을 비롯한 약초가공업체, 도·소매상 등에 판매한 산청군 거주 농가 및 법인 등이다.

지원품목은 전락약초 4개 품목(적·하수오, 도라지, 홍화, 초석잠)과 작약, 감초, 생강, 동굴레, 참당귀, 구기자다.

지원요건은 약초별 재배면적 500㎡ 이상이며, 지원한도는 500만원 이내다. 자가 소비 및 개인 간 소규모 거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오는 6월 중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과 약초생산안정기금 운용심의회, 증빙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약초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나 법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한방향노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약초생산 기반을 다지는 지원사업인 '약초생산 기반조성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지속하고 있다.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은 '한방약초안정생산 지원'과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이 주요 골자다. 산청군의 전략약초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전략약초 외의 약용작물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가공 및 제품개발이 용이한 도라지, 하수오, 홍화, 초석잠 등 4개 품목을 산청군 전략약초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한방약초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전략약초 4개 품목을 제외한 약용작물 재배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종근, 모종)와 피복용 농자재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청 한방약초의 상품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농가의 재정부담도 덜 수 있는 '한방약초규격포장재 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약초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은 통일된 디자인의 포장재를 이용해 브랜드 가치와 제품 인지도를 높

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약초생산농가의 소득 보전과 명품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박형준표 산-학-관 협력 사업,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과 첫 결실 맺다

박형준표 산-학-관 협력 사업,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과 첫 결실 맺다

부산은 5월 18일 15시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싱가포르 바이오제약기업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RND센터 신설 투자양해각서 및 산학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후 제1호 외국기업 유치이며, 부산시 최초 바이오제약 RND센터 유치로 의미가 깊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우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부회장,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김병진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이민건 부산지역 대학산학협력단장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박소연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회장은 싱가포르 본사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체결식에 함께한다.

이번 투자를 통해 기업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연면적 4만5천㎡ 규모로 항체치료제 개발 및 신종감염병 백신 기술 개발을 주 사업으로 하는 RND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게 되며, 이를 위해 5년간 1억 5200만 달러(한화 1,680억원)를 투자하고 석박사급 195명을 포함하여 총 209명의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인재 50% 이상 채용, 채용형 인턴십 운영, 오픈 이노베이션(개발형 혁신)을 통해 지역 대학, 바이오벤처, 우수 연구인력과 협업함으로써 산-학-연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부산시와 지역 상생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박소연 회장은 작년 11월 명



지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경제부시장을 예방하는 등 부산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2015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7개의 차세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과 17개의 바이오시밀러 및 항체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개발이 앞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HD201'는 임상3상을 완료하고 유럽의약품정

다. 또한 지난 2월, 싱가포르 기업으로는 최초로 국내 코스피에 상장된 바 있다.

글로벌 바이오제약 산업은 2019년 2,660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 5,0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9.6%의 성장률로 지속적인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바이오 기술은 건강한 삶을 위한 인류 복지와 경제성장을 아우르며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바이오제약 RND센터가 부산에 건립됨으로써 향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인력양성 및 RND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부산 바이오 산업 성장을 이끌어 갈 엔지니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소연 회장은 "금번 부산과의 협업을 계기로 국내 최초 Bio Digital Transformation(전환) 혁신 유니버스를 구축을 통해 세계 최대 신약 및 신종감염병 백신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부산 명지지구 바이오 RND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지역 바이오산업의 리더 기업으로 자리잡아 바이오산업 성장과 바이오벤처 창업이 확산되는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영기기자

2022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 기원 퍼포먼스 펼쳐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지난 주말 오후 7시 열린 제24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엑스포 사전 붐 조성 및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번 퍼포먼스는 엑스포 개최일이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람객 유치와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하동야생차문화축제가 비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만큼, 엑스포 성공 기원 퍼포먼스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퍼포먼스는 엑스포조직위원회와 진주하안메디컬과의 합동 3000매 사전구매 약정, 현행증서 기증, 엑스포 D-day 홍보 전광판 제막 순으로 진

행됐다.

윤상기 하동군수, 이병송 하안메디컬 원장, 이동진 엑스포조직위 기획본부장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주무대에서 입장권 3000매 사전구매를 약정했다.

조직위와 하안메디컬 양 기관은 입장권 3000매 사전구매뿐만 아니라 스넥스포 기간 중 뷰티, 헬스케어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엑스포 개최 D-365를 기념하기 위해 4월 실시한 하동군민 현행 행사에서 군민들의 자발적인 기증으로 모인 현행증서 373장을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 성공 기원 퍼포먼스의 메인 행사인 엑스포 D-day

홍보전광판 제막식이 이어졌다.

하영제 국회의원, 윤상기 하동군수, 박성근 하동군의회 의장, 이정훈 도의원, 이동진 엑스포조직위 기획본부장, 김기재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명예대회장, 강대진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이 참여해 한마음 한뜻을 모아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했다.

엑스포 D-day 홍보전광판은 하동의 다원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작돼 하동군 주요관광지인 화계장터, 최참판댁, 우주총동원카페, 북천 레일파크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장인 김경수 지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천년의 향을 간직한 하동 야생차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농업유산"이라며 "내

년에는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가 세계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행사 직후 이병송 하안메디컬 원장은 "국제행사인 하동세계차엑스포에 참여하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의료 지원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하동세계차엑스포는 국내 최초 차를 주제로 한 엑스포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 4월에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동군(하동스포츠파크,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과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최광용기자



익산 여자야구단, MBC '마녀들'과 한판 승부

익산 어메이징 여자야구단, MBC 웹예능 '마녀들' 선수단 만나

익산 어메이징 여자야구단이 지역에 방문한 MBC 웹예능 '마녀들' 선수단과 웃음과 감동이 있는 한판 승부를 펼쳤다.

시는 14일 익산야구장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이 시구자로, 유재구 익산시의회장이 시타자로 나선 가운데 야구 친선경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마녀들' 선수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전할 수 있도록 멋진 경기를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 어메이징 여자야구단'은 전북의 류현진·추신수 선수를 꿈꾸는 전북 제1호 여자 야구단으로, 지난 2013년 창단된 이래 총 50여 경기에 출전한 경험과 관록을 갖춘 강팀이다.

아마추어 야구단 '마녀들'은 개그우먼 김민경, 가수 윤보미,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신수지, 치어리더 박기량 등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일반 사회인 야구 선수로 구성됐다.

이날 경기에서 참가 선수들은 체

계적인 트레이닝과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으며, 코미디언 박성광은 매니저로 등장해 선수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재미를 더했다.

또한 '마녀들'은 그라운드에 향하기 전 익산에서 꼭 가봐야 할 곳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미륵사지를 다녀와 지역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껴보기도 했다.

'마녀들'의 미륵사지 방문과 이날 펼쳐진 경기는 유튜브와 wavve, 지상파, 케이블 등을 통해 다음달 초 방송된다.

시 관계자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지만 멋진 경기를 펼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친선경기를 통해 코로나19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녀들' 선수단들의 도전은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제11회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 참가를 목표로 계속될 예정이다.

이선수기자



전북교육청, 2021. 한·중 고교생 교류

전북 4개 고교, 중국 충칭시와 1:1 온라인 교류 실시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내 고교생 60명과 충칭시 고교생 60명이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2주 동안 '2021. 한·중 고교생 온라인 교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충칭시교육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도내 4개교(전북외고, 고창북고, 한일고, 세인고) 2학년 학생 60명이 참여하여 중국 충칭시 파죽고, 제2외국어고, 남가고, 위베이고와 온라인을 통해 1:1 상호 교류의 장으로 진행된다.

한·중 고교생 교류사업은 한·중 교육교류약정(2012.5.21.)에 의해 매년 양국 학생이 상호 교환 방문하여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고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 교류하기로 충칭시와 협의하였다.

학생들은 2주간의 교류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양국의 학교생활 체험, 역사 유적지 견학, 음식, 의복 문화 등의 간접체험으로 중국 버디들과의 우정을 돈독히 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학교 교사들도 한·중 공



동수업을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학교 간 온라인 교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온라인환경구축은 주최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이 위탁업체와 함께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제작한 자국의 문화와 전통, 역사 등에 관한 소개 영상 등을 제작 발표하면서 자국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한·중 양국 학생들 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송일기자

군산시, 국내 최초 국산맥아 수제맥주 공개 '뜨거운 관심'

맥주재료 국산화에 앞장서며 농업과 맥주산업의 상생의 장 열어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를 군산에서 재배되는 보리로 성공시킨 '군산맥아'가 맥주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맥아로 만든 수제맥주를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맥주산업 전문 전시회인 '제3회 대한민국 맥주산업 박람회(KIBEX 2021)'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맥아는 보리나 밀 등 곡물을 알코올 발효되기 용이한 상태로 가공한 것으로, 지금까지 국내 맥주 업계에서는 대부분 수입산 맥아를 사용했다. 국산 보리를 맥아로 가공해 외부에 판매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내 최초의 상업 맥아 제조 시설(연간 250톤 규모)을 구축하고 군산 지역에서 재배되는 맥주보리를 가공한 맥아 완제품(군산 맥아)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100% 국산재료로 만든 맥주의 탄성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시는 한국수제맥주협회 소속 7개 양조장과 협업체 군산 맥아로 만든 다양한 맥주를 선보였다.

비어바나(서울), 갈매기 브루잉(부산), 인첸맥주(인천), 트레비어(울산), 화수브루어리(울산), 버드나무 브루어리(강릉), 크래프트 루트(속초) 등 전국의 양조장이 참여해 스타우트, 페일에일, 인디아페일에일(IPA), 라거 등 여러 맥주를 생산함으로써 '보



리에서 맥주까지-대한민국 수제맥주 대표도시'로의 첫발을 내딛었다.

박람회장의 중앙자리를 차지한 '군산맥아'부스에는 하루에만 수천명의 관람객과 국내 140여개의 수제맥주 업계 관계자들로 북새통으로 이루어진 그 맛과 품질을 인증받아 군산맥아가 수제맥주 양조에 손색없음을 증명했다.

개막일인 17일에는 군산시와 (사)한국수제맥주협회가 '군산맥아 상용화와 공동 마케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맥아판로의 길을 더 넓혔다.

신현승 군산부시장과 박정진 한국수제맥주협회장(카브루 대표)이 서명한 협약서에는 군산맥아와 이를 활용

한 국산 수제맥주 붐 조성을 위해 기술협력과 공동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맥아'는 수입에 의존했던 맥아를 이제 군산에서 생산하고 이를 수제맥주업계가 소비하는 완전 새로운 보리 시장을 개척한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업과 상생해 군산이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가 되도록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IBEX는 맥주 재료부터 양조 설비, 유통, 교육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맥주 산업 밸류체인을 위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유일 맥주 산업 전문 전시회이다.

김현태기자

박성일 완주군 군수, "지방재정 신속집행 철저히 대응해 달라" 주문

17일 간부회의에서 "전·후임자 간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해야" 강조

박성일 완주군 군수는 17일 "신규 직원이 많고 행정 업무는 갈수록 다양화, 복잡화 되고 있다"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규 직원들의 업무 연찬이 부족하고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인수인계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군수는 "전임자가 자신의 업무를 대충 후임자에게 넘기고, 후임자는 전임자가 안 했으니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며 "특히 법규에 기초 한 업무연찬을 확실하게 행정 업무에 누수(漏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또 "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해 목표율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나서 챙기는 등 올해 상반기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즉시집행 가능사업 위주로 신속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군수는 "대선공약에 우리 지역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마



지마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대선공약 최종 사업 목록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까지 도와 전북연구원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내년도 국가예산과 올해 각종 공모사업 대응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의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군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보완과 설득을 통해 추가 예산확보에 나서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수강생이 강사가 되어 원데이클래스 진행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21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아카데미 성과공유회를 2차례로 나눠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성과공유회는 남원시 도시재생건물 1호 빨간벽돌(동헌길 98)에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야외공간에서 행사를 진행되었다. 2021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아카데미 강좌별로 유리공예 공방 창업 교육에서는 수강생 원데이클래스 및 작품전시, 카페창업교육과 공유주방 활용 방안 조리 교육, 숲정리마을 정원사 양성 교육은 교육 사진 전시로 성과를 공유했다.

성과공유회 2차는 5월 17일 남원시청 로비에서 카페 창업 교육 수강생들의 카페메뉴 시음회와 유리공예 공방 창업 교육의 유리공예 작품전

시와 더불어 숲정리마을 정원사 양성 교육, 공유주방 활용 방안 조리 교육 사진 전시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뉴딜아카데미교육에서는 강좌를 수강한 수강생들이 공동체를 조직해 수강한 강좌에서 교육한 내용으로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해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과 유류공방을 활용한 마을 정원조성 등의 주민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원데이클래스 강사로 참여한 뉴딜아카데미 교육생은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해보니 본인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실제로 창업에 필요한 스킬을 얻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남원시 도시재생 관계자는 '뉴딜아카데미와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도시



재생사업에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애착을 두고 꾸준히 활동하는 주민조직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전주시, 온두레공동체·사회적기업, 생방송 장터 연다

온두레공동체와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시민장터가 흡소평처럼 소비자와 판매자가 만나는 라이브 커머스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6일까지 기존 야호시장 참여자와 온두레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1 전주 야호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할 10개 팀을 접수한다.

전주 야호 라이브커머스는 당초 전주중합경기장과 객사길, 첫마중길 등에서 물품 판매와 문화공연 등으로 펼쳐져왔던 전주 야호시장 등 플라마켓을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트렌드를 반영해 온라인으로 여는 프로젝트다. 참여자들은 그림, 네이머, 카카오 등 플랫폼을 활용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장을 만들게 된다.

지원 자격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전주시민과 전주 소재 사업장 운영자로, 전주를 상징하고 스토리가 있는 특색 있는 상품과 3일 이내에 배송할 수 있는 상품,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 운영 경험이 있는 자의 상품이 우선 선정 된다.

시는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판매



전략 수립, 상품별 판매 스토리 구성, 영상촬영 리허설 등 1:1 컨설팅을 지원한 뒤 다음 달 말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판매 촉진을 위한 이벤트 상품과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이 라이브커머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진 플라마켓 소규모 셀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명숙 전주시 마을공동체과장은 "이번 라이브커머스 사업이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친 셀러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온두레공동체와 플라마켓에 관심이 있는 시민, 사회적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화순군, '스마트·친환경'으로 미래 축산업 육성

친환경형 축산 농장, 스마트 축산 확대...농가 소득 증대 도모

화순군이 '스마트·친환경'을 가치로 미래 축산업을 육성한다.

화순군은 친환경 축산 농장 확대, 가축 분뇨 자원화와 악취 저감을 통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최첨단 경매 시설을 구축해 지역 내 가축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축 개량으로 전남 으뜸 한우 브랜드 육성에 힘쓴다.

군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 친환경 축산 인증 농가 확대에 환경 친화형 축산 농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축산 ICT 융·복합 지원 사업, 축산 현대화 사업, 녹색 축산 기금 사업에 41억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60호,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신청 97호,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농장 지정 17호 등 환경 친화형 농장 육성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분뇨 적정 처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축산 악취 개선 사업과 미생물 악취 저감제 등에 2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안정적인 사료 수급과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2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육성, 품질 관리, 기계 장비, 파종비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도 25억2900만 원을 지원해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조사료 이용률을 높여 가축의 건강과 육질 향상을 소비자 기호에 맞는 축산물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축유통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최첨단 경매 시설(가축 시장) 신축을 지원해 가축 거래 활성화도 도모한다.

13억6000만 원을 화순축협에 지원해 계류장, 첨단 경매 시스템, 사무실, 부대시설, 주차장, 휴게실 등을 갖춘 가축 시장 신축이 추진된다. 시장 신축을 통해 지역의 우량 혈통 송아지 출몰을 막고 편의를 제공한다.

2019년도부터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 개량으로 전남 으뜸 한우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브랜드 육성 사업을 통해 한우 자질 향상과 경매 가격 상승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105두가 선정되었고 올해는 2379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틈새 가축 육성에 필요한 기반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학생 승마 체험, 학교 우유 급식 확대, 풀벌 산업 육성,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가금류 칼슘 지원 등에 9억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화순군

은 전라남도 '녹색 축산 시책 종합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축산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환경 친화형 축산 농장을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정읍시,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 알리기 나서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 알리는 홍보 UCC 공모전 개최

민선 7기 정읍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향(井香)누리 향기공화국 정읍' 만들기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은 정읍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읍시가 내건 오향(五香)이 주축인 정책사업이다.

정읍의 향기를 뜻하는 정향(井香)과 온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누리를 합성해 정읍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정읍의 오향은 인향(人香), 성향(馨香), 주향(酒香), 미향(味香), 화향(花香) 등으로 정읍의 역사와 문화, 인물, 전통주 등을 아우르는 단어다.

즉,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를 바탕으로 정읍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 정체성을 높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취지다.

인향(人香)은 고운 최치원과 불우현 정극인, 정읍 현감 이순신, 전봉준 장군, 독립운동가 백정기·박준승 등 지역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성향(馨香)은 수제천과 정읍사, 우도농악 등 지역의 전통 음악을 말하고, 주향(酒香)은 조선 3대 명주로 알려진 죽령고를 비롯해 막걸리와 복분자주 등 전통술을 뜻한다.

미향(味香)은 쌀과 한우, 쌍화차, 단풍미라 등 정읍을 대표하는 음식의 맛이고, 화향(花香)은 구절초와 벚꽃, 라벤다, 피향정 연꽃 등 지역의 특색있는 꽃을 가리킨다.

시는 이러한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발굴·확산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해 5월 13일부터 6월 21까지 40일간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정읍'을 주제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내용은 정읍의 다섯 가지 향기를 뜻하는 오향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소개하는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이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읍의 오향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문화 콘텐츠 자원을 확보·보급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청소년부와 대학·일반부로 나눠 진행되며, 나이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경우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안내에

구분	종류	액	단위
1등	영상	400,000	명
	현금	100,000	명
2등	영상	200,000	명
	현금	50,000	명
3등	영상	100,000	명
	현금	25,000	명
4등	영상	50,000	명
	현금	12,500	명
5등	영상	25,000	명
	현금	6,250	명

장흥군,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교육'

장흥군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지난 13일과 14일 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조사요원 1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경제총조사는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시행되는 대규모 통계조사로, 우리나라의 기업과 경제 활동을 측정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교육은 조사에 임할 일반사업체 조사 요원을 대상으로 ▲조사 개요 ▲조사표 작성 요령 ▲안전수칙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경제총조사는 우리 지역의 경제와 산업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다"며 "조사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크고 작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교육을 받은 조사요원은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관내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기간, 사업 실적 등 37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김장길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충남도, 유치기업 고용2배 · 투자3배 급증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내 유치 기업 중 지난 1~4월 공장을 준공하고 가동하기 시작한 업체는 279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0개보다 49개(18.7%) 늘었다.

시군별 신규 준공·가동 기업은 천안 91개, 아산 83개, 당진 24개, 금산 22개, 공주와 보령이 각각 14개, 홍성 13개, 예산 9개 등이다.

업종별로는 조립금속기계 69개, 전기전자통신 47개, 식품 37개, 자동차 부품 21개, 비금속 20개 등의 순이다.

279개 기업의 투자 금액은 총 1조 9291억 원으로, 지난해 1~4월 6464억 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고용 인원은 지난해 1~4월 2605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5280명으로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투자 부지 면적은 189만㎡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도외 소재 기업 분사·공장 이전 시 설비 투자의 10% 범위 내 지원 추가, 이주 직원 개인 및 세대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충남의 좋은 여건이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국내 우량 기업 유치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4대 전략산업 및 권역별 특화산업 집중 유치 △대기업(모기업) 유치를 통한 협력업체 동반 이전 유도 △기업 실수요 맞춤형 토지 적기 제공 △우량 기업 유치 대상 지역 확대 및 다변화 △국내 북극 기업(리쇼어링) 유치 확대 △전략적 기업 유치 홍보 및 전문가 그룹 운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올해 기업 유치 전략으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 중이다.

목표는 국내 기업 745개사 유치, 국내 북극 기업 2개사 이상 유치로 잡았다.

김원호/기자

충청북도, 수소차 대중화 선도 · · · 대당 100만원 추가보조한다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한다.

충청북도는 17일 수소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수소차 1대당 지원금을 100만 원 상당한 총 3,3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넥쏘 차량 가격 7,000만 원의 약 47.8%에 달하는 금액이다.

5등급 노후 경우 차량을 폐차하고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조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지난해 이월한 184대를 포함한 총 1,086대*의 수소차를 보급한다.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가 길고 물만 배출해 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시간당 26.9kg의 공기를 정화해 일

명 '달리는 공기청정기'나 '공극의 친환경자동차'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등 각종 세금혜택과 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도 있다.

한편 충북도는 수소자동차 보급에 가장 큰 장애요인인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수소충전소 기반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 7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며, 7개소를 추가로 구축해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 충전 생태계를 갖출 계획이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려면 우리 모두가 환경적 가치를 그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친환경자동차 전환에 최일



선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수소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대상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부서를 참고하거나 시군 기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만식/기자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체험' 진행

우리 전통문화 후대 계승하기 위해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1년도 '100한국(Cook) 전통음식·놀이체험'을 예산군 사랑채에서 지난 5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100한국'은 어린이뿐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가족 구성원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매년 높은 참여도에 힘입어 센터 개소 이후 지속해서 수행해 온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학부모와 함께하는 가족 프로그램 및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혼자서도 잘해요'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족 프로그램은 경단과 전통약기인 장구 만들기가 각각 진행됐으며, '혼자서도 잘해요' 프로그램은 바람

떡과 청사초롱 만들기 등 우리나라 전통음식과 전통문화를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식으로 진행해 참가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윷놀이, 투호 놀이, 한복체험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전통놀이·문화 체험장이 마련돼 어린이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평소 체험해보지 못하는 전통문화를 접할 좋은 기회가 있어 해마다 참석하고 있다"며 "늘 알찬 체험 교육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들이 전통문화를 지속해서 계승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와 함께하는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와 함께하는 2021. 5. 24 ~ 6. 22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참여대상: 원주시민 누구나
 참가신청: 워크온 어플을 이용하여 15만보 달성하고 선물받기
 문의: 원주시치매안심센터 ☎ 033-737-4552

참여방법 (※ 스마트폰을 가지고 걸어야 걸음수가 반영됩니다.)

1. 워크온 어플 다운로드
2. 원주시치매안심센터 커뮤니티 앱에 회원가입
3. 한마을 치매극복 걷기 행사 참여 참여 노리기
4. 15만보 달성하고 선물받기 (선착순 200명)
5. 선물받기 버튼 클릭하여 버튼 클릭 (매주 지급)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미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걷기를 통해 우울감을 이겨내고 치매예방 수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한마을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 30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Walkon)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걷기에 관심 있는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원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다음 '2021년 한

마을 치매극복 온라인 걷기행사' 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챌린지는 행사 기간 개별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좋아하는 코스를 정해 15만 보를 달성하면 된다.

걷기생활을 습관화하기 위해 1일 걸을 수는 최대 1만 보로 제한된다.

기간 내 목표걸음수를 달성한 참여자 가운데 선착순 200명에게는 기념품(KF94 마스크 1박스)이 제공된다.

이미나 센터장은 "치매예방에 좋은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걷기"라며,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행사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논산소방서, '장난전화'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논산소방서는 119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 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1회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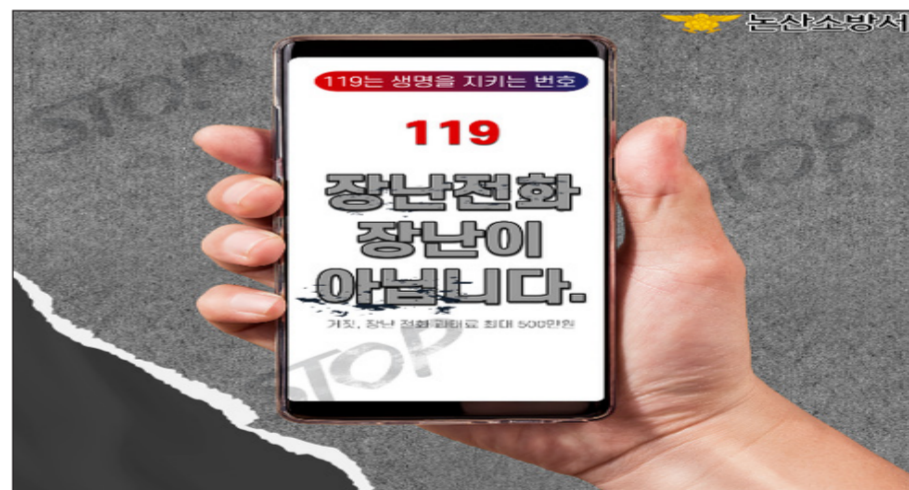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 해 발생한 장난·허위 신고

는 2018년 763건, 2019년 421건, 2020년 670건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방지하고,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순 현장대응단장은 "연간 수백건의 장난전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대전시, 2050 탄소중립 실현! 이색 아이디어 모아볼까?

대전시는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라는 주제로 5월 17일부터 한달 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을 위한 지구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를 지키기 위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지향점이다.

대전시는 지난 1월, 농민 순탄소배출량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감축과 2050년 순(淨)배출량 0(zero) 달성을 목표로 건물, 수송, 에너지, 시민협력, 도시숲 조성 부문의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인 '기후변화대응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탄소흡수원인 녹

지 확충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숲 1,000개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며 "이번 공론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공감하고, 다각적인 탄소중립 실현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행동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사회 실현!!

시민여러분의 생각을 모으고, 실천을 더하여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 속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탄소중립'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 실천을 이끌 방안...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제안 등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대전시소'의 '시민토론'과 '대전시가 제 안합니다'에 다양한 주제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있다.

고정화/기자

남원시, 제48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명창부 대통령상 정승희씨

남원시, 제48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명창부 대통령상 정승희씨

제48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서 정승희(39, 전남 목포)씨가 두 번의 도전 끝에 판소리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48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경연에서 정씨는 판소리 춘향가 중 '박석고개 대목'을 열창해 총점 494.58점(심사위원 점수 445.5점 중 평균 49.08)을 받고, 대통령상을 받았다.

정씨는 제 47회 때부터 대회에 출전, 그 해 최우수상을 입상하고, 이번 대회에서 마침내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목표 출신인 정씨는 할머니의 권유에 의해 7살 나이로 소리에 입문했으며, 안혜란, 성우향, 박양덕 명창으로

부터 지도를 받았다.

정 씨는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음악극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국립민속국악원 창작단 부수석으로 왕성한 국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영자 종합결산 심사위원장은 정명창에 대해 "소리꾼은 우선 목이 약하기 때문에 목이 타고 나아진다. 정명창의 소리는 오늘 공력이 좋았고, 안정감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노련했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어사상봉 대목부터 옥중 이별하는 장면까지 여러 면에서 너름새가 좋았으며, 해학적인 면도 잘 갖춰 센스 있게 잘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김승일/기자



곡성군, 2021년 군민의상 수상자 선정

교육 및 문화체육 부문 김성범, 지역개발 및 경제 부문 배만익

곡성군이 올해 군민의상 수상자로 교육 및 문화체육 부문에 김성범(59)씨, 지역개발 및 경제 부문에 배만익(66)씨를 선정했다.

곡성군민의 상은 지역사회 발전이나 군민 복리 증진에 공적이 있거나 명성을 떨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1984년부터 올해까지 교육 및 문화체육, 농업 및 환경, 지역개발 및 경제, 사회복지 및 효행 분야에서 109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 결정은 지난 13일 곡성군청 소풍마루에서 열린 수상자 결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교육 및 문화체육 부문 상을 수상한 김성범 씨는 섬진강도깨비마을을 운영하며 아동문학가 및 동요 작곡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곡성군을 배경으로 하는 동화, 동시, 동요 등을 다수 출판해 지역 알리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책이 꿈지락 꿈지락'은 초등 국어교과서(국어 2-가)에 실려 있고, 유치원협회의 추천도서로도 선정돼 전국에 곡성군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사)섬진강도깨비마을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교두보로서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지역개발 및 경제 부문 상을 수상한 배만익 씨는 서울에서 (주)익산정밀을 운영하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재경곡성군향우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회장 역할 중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을 주도해 곡성유치원생 전원에



운동복 후원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곡성 지역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1억 4000여만원의 성금 및 물품을 기탁하기도 했다. 또한 곡성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고향의 인재 발굴을 위해 다양한 봉사 및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2021년 곡성군민의 상 시상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군민의 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추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상홍/기자

달서구, 가정의 달 5월 가족가치 실현 위해 모범 가족 시상

달서구, '2021달서 가족상' 시상

대구 달서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14일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족문화의 모범이 되는 가족을 발굴하여 격려하고자 달서 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달서 가족상'은 2020년부터 우리 주변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가족을 찾아 격려함으로써 가족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상하고 있다.

선정대상은 3년 이상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시상분야는 영아부부, 희망가족, 화목가족 등 3개 분야이다.

영아부부 분야는 결혼생활 30년 이상 된 부부, 희망가족 분야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역경을 디디고 일어난 가족 및 다문화가정, 화목가족 분야는 3자녀 이상 또는 3대가 같이

살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가족공동체 확산에 기여한 가족 등이다.

'2021달서 가족상' 중 영아부부로 선정된 민병달(82세)·박인자(76세) 부부는 결혼생활 50년 동안 장애가정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을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부부생활을 실천하였다.

또한, 희망가족에 선정된 부이티투반(40세) 가족은 다문화·장애 가정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관습, 문화차이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배려로 가족관계 및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또한, 화목가족으로 선정된 강화아(41세)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다섯 자녀를 양육하며 건강한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의 위협에서 지역과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가족이다. 달서 가족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건강한 가족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수성구 외국인 홍보대사, 수성구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요



대구 수성구는 지난 14일 미국인 멜라니 밀러(Melanie N. Miller, 여)씨를 '수성구 외국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멜라니 씨는 미군부대 초등학교 대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대구에 근무하는 미 군무원의 배우자다. 대구에는 3년째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모명재 한국전통문화 체험관에서 송편 만들기 체험을 계기로 수성구청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그 후 동의보감 음식, 다례 등 전통문화에 매료돼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멜라니 씨는 본인이 경험한 수성구의 숨은 매력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홍보대사 위촉을 수락했다. 앞으로 외국인 선호도에 맞는 관광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성구 관광지를 외국인에게 직접 홍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수성구는 멜라니 씨의 적극적인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대구와 수성구를 사랑하는 점, 긍정적이고 활발한 성격 등이 외국인들에게 수성구

관광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수성구는 외국인 홍보대사 위촉을 위해 대구에 거주하는 미군 가족과 원어민 강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인터뷰를 거쳐 멜라니 씨를 최종 선발했다. 오는 6월 중 1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멜라니 씨는 "수성구 외국인 홍보대사로 위촉돼 기쁘고, 훌륭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며, "수성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멋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외국인 홍보대사는 외국인 입장에서 흥미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수성못 등 관광지뿐만 아니라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안전한 도시인 수성구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중구, '서울민음치과', '연세예감치과' 치과진료 지원 협약 추진

중구가 지난 3월 31일 서울민음치과, 4월 26일 연세예감치과와 후원협약을 맺고 저소득 주민을 위해 치과진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후원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중립동 소재의 서울민음치과(원장 박정선)는 2018년부터 저소득 주민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일반 저소득 주민 월 16명에게 틀니, 임플란트, 보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소공동에 위치한 연세예감치과는

취약계층을 추천받아 만 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지원과 함께 비보림 치료도 일부 지원한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해당 치과 두 곳은 협약을 통해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1년간 치과 진료 후원을 약속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저소득 주민들은 치과 치료는 목돈이 들 수 있다는 생각에 방문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지속적인 진료 후원을 약속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신 '서울민음치과'와 '연세예감치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진주시민축구단, 강원FC B팀 잡고 2연승

강원FC B팀 상대로 2 대 1 승리

진주시민축구단이 지난 15일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1 K4리그 홈경기에서 강원FC B팀을 상대로 2 대 1로 승리하며 연승을 거뒀다.

올해부터 K4리그에 프로 B팀이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K리그 1부 강원FC는 프로 22개팀 중 유일하게 K4리그에 B팀을 참가시키고 있다.

지난 라운드 역전승으로 분위기를 전환한 진주시민축구단은 홈경기에서 승리하여 다시 연승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였다.

전반 4분 만에 한건용의 패스를 받아 성봉재가 골문 앞에서 가볍게 밀어 넣으며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후반 35분 실점을 하며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홈 승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공격에 나선 진주시민축구단은 종료 직전 상대 수비수의 공을 뺏은 심지훈이 극적인 골을 넣으며 2 대 1 승리로 마무리했다.

홈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며 다시 승점 쌓기에 나선 진주시민축구단은 선두권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고, 오는 5월 19일 서울노원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진주종합경기장에서 무관중 경기를 치른다.

최광용/기자



서울시, 체험형 박물관 등의 문박물관마을 2021년 하반기 체험교육 운영파트너 공개 모집

역사문화 분야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개인(단체) 공모

서울시가 '근현대 100년, 기억의 보관소' 등의 문박물관마을의 한옥 건물을 활용하여, 비영리 목적의 체험·교육 등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개인(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 한옥동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체험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개인 및 단체(다도 체험, 한글 캘리그래피 교실, 꽃꽂이 등), ▲ 기타 마을 콘셉트에 맞는 콘텐츠(근현대 역사·문화 관련 콘텐츠)를 보유한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운영자 부담 완화 및 체험교육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오전·오후·저녁 시간대별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심사결과 1순위부터 운영 공간·시간 선택권을 가지며, 선택 가능한 운영시간은 화~일 오전(10~14시), 오후(15~19시), 야간(20~22시) 중 최대 18타입이다. 단, 방문객이 많은 주말 1타입 선택 시 평일도 1타입도 의무적으로 배정된다.

선정된 운영파트너(단체)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하고 운영시간 중에는 배정된 공간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시간 전후 30분은 준비 및 정리정돈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운영파트너(단체)는 2022년 2월말까지 약 8개월 간 각 분야 특색을 살린 체험·교육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선정된 운영파트너(단체)는 마을 한옥동 공간 이외에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보관소, 등의문상화

와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입점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지원자는 5.17일부터 6.6일 24:00까지 등의문박물관마을 마을안내소 4층에 직접 방문

하거나 이메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6월 11일 18시에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오는 5월 25일 14시 등의문박물관마을 마을안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번 사업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및 대상 공간 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등의문박물관마을은 '누구나 아는 방정환, 내가 몰랐던 방정환'(5.2~), 등의문구락부 개편(5.15~) 등 새로운 체험형 전시관을 개관하여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서대문역 4번 출구 5분 거리에 위치한 등의문박물관마을은 매주 화~일요일 10:00~19:00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등의문박물관마을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가족 나들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며, "2021년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현유주/기자

영주시, 2021년 경순왕 승은전 춘향대제 봉행

신라 경순왕의 위민정신을 기리며



경북 영주시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승은전에서 신라 경순왕의 위민정신을 기리기 위한 '2021년 경순왕 춘향대제'를 봉행했다.

철탄산 서쪽 기슭에 고고히 자리잡은 승은전(崇恩殿)은 신라 제56대 왕인 경순대왕의 애끓는 위민정신과 찬란한 신라 문화를 지켜낸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대왕의 위패와 어진을 봉안하고 추모하고 있는 전(殿)이다.

경내에는 제향영역인 승은전과 강학 및 친목공간인 팔영정(八榮亭)이 있으며, 정문각(正門閣)과 숭신문(崇神門)이 있다.

신라기원 2078년 신축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승은전 춘향대제는 초현관에는 김학동 예천군수, 아현관에는 김영환 경주 송해전 참봉, 종현관에는 김찬우 승은전 전 참봉이 각각 맡아 제향을 올렸다.

또한 대축관에는 강규을 동양대 교수, 집례관에 임영인 육천서원 도유사, 찬사로는 김재현 경순왕릉 초

대 참봉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춘향대제는 총 2부로 진행됐으며, 1부는 개좌인사를 포함한 대제 찬석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다.

이어 진행된 2부는 집례관의 참찰(唱笏)에 따라 엄숙한 분위기에서 대제를 봉행했으며, 50여명이 넘는 유림들이 참여해 춘향대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김장환 승은전보존회장은 개좌인사에서 "올해는 비록 '코로나19' 사태의 연속으로 작은 규모로 준비했지만 대왕이 서거하신 음력 4월초 4일에 대제를 봉행하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참여한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이어 "모든 참여분들과 영주시민들이 오늘 하루라도 경순대왕의 애민정신을 몸으로 느껴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대제 봉행에 성심을 다 하겠다."고 이번 춘향대제의 소감을 밝혔다.

김세기/기자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이 담긴 사진을 공모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생태계 모습 담은 제20회 사진 공모전 열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계 모습 등을 주제로 '제20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공고문(5월 17일)을 내고,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대상에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 500만 원을, 최우수상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300만 원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4,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참가 접수는 국립공원공단 접수 누리집에서 받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자연경관,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및 공원 이용 모습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출품이 가능하며, 총 80점을 선정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특별부문으로 한국화(수묵화 및 수묵담채화)가 추가됐다. 한국화 특별부문은 접수 누리집에서 제시한 사진을 그리거나, 국립공원 현장에서 직접 그린 그림을 디지털 사진(용량 3메가바이트 이하)으로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촬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연 훼손, 동물 학대, 통제구역 출입 등의 위법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은 1993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난 2020년 제19회 대회까지 총 9,000여 명이 참가하고 5만 1,000여 점이 출품되는 등 그 출품 수량과 수준에서 국내 최고의 자연·환경 분야 사진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간의 수상 작품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비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수상작 중 업선된 작품으로 구성된 국립공원 사진전시회가 병행, 수상시설, 대학교 등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수한 작품이 많이 공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전순희/기자



세종시문화재단, '세종공연예술연습공간' 하반기 정기대관 모집

세종공연예술연습공간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용 신막2길 45(화~토 10:00~22:00)

2021 하반기 정기대관 모집
5.21.(금) - 6.11.(금)

모집기간	2021.5.21.(금) ~ 6.11.(금) 18:00까지
대관기간	2021.7.1.(목) ~ 12.31.(금)
대관시설	대연습실, 중연습실, 소연습실1, 소연습실2, 회의실
신청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대관시스템(https://arko.or.kr/pspace/)
결과발표	2021.6.25.(금)
문의전화	T. 070-7779-5033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문화재단

금정문화재단, 팬데믹도 못 꺾은 예술혼 조명

2021 뮤지엄 서동 첫번째 전시회 "예술가, 놓을 수 없는 예술의 혼"展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예술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가들의 삶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재)금정문화재단은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예술가, 놓을 수 없는 예술의 혼' 전시를 서동예술창작공간 작은갤러리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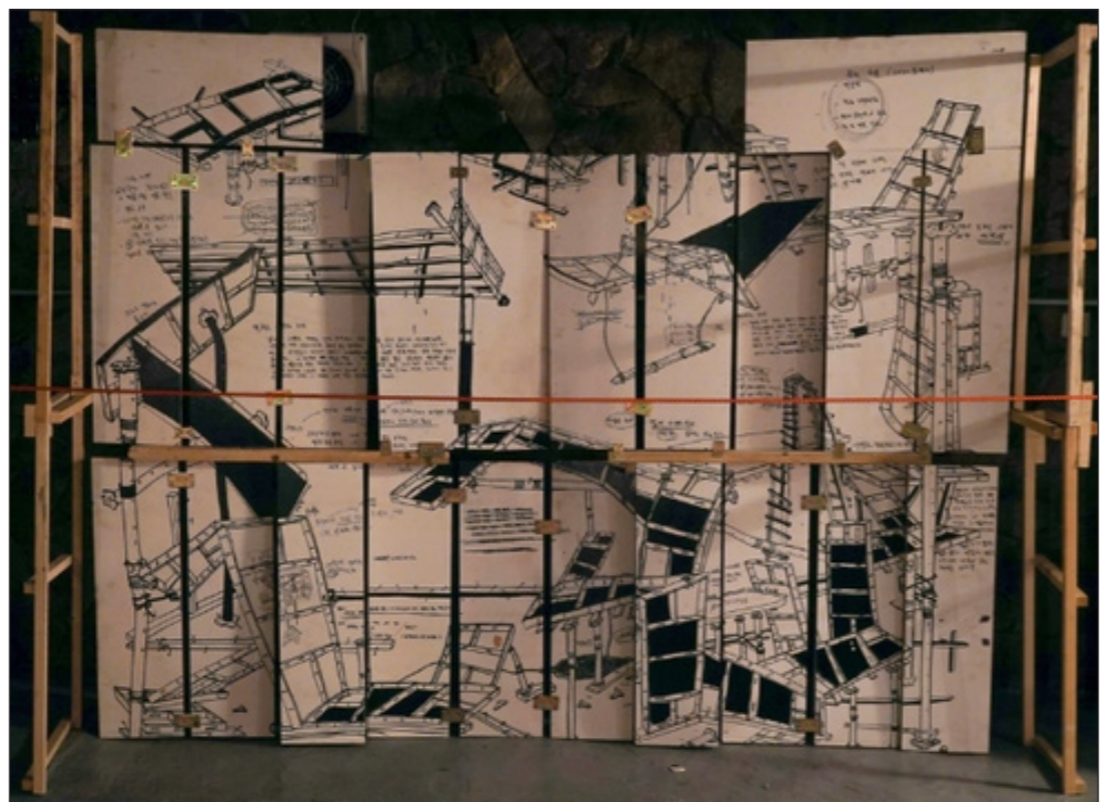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는 서동예술창작공간과 셋북문화예술촌의 입주 예술가 정재은, 이재희 작가가 참여한다.

정재은 작가는 '나의 못 보던 부분들' '일상에 투영된 누군가'라는 주제로, 개인적인 사소한 부분이 타인의 것과 공유되어 또 다른 색깔을 이루는 모습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이재희 작가는 '결과와 과정에 대한 부분'이라는 주제로, 결과는 이전 과정과 다음 과정을 이어지도록 하는 매개체로서 일련의 과정이 연속되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금정문화재단의 전시회 프로그램 '뮤지엄 서동'은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네 편의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금정문화재단 정미영 이사장은 "지역의 예술가들을 위한 전시와 공연을 마련해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분이 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은 2021년도 하반기 '세종공연예술연습공간' 정기대관 모집을 진행한 다.

세종공연예술연습공간은 지난해 11월 개관하여 지역 공연예술인과 시민에게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연습공간으로, 이번 정기대관 대상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이다.

대관시설은 대연습실(108㎡) 1실, 중연습실(72㎡) 1실, 소연습실(45㎡/49㎡) 2실, 회의실 등이며 그랜드피아노, 업라이트피아노, 신디사이저, 무용바, 세트 드럼, 음향기기, 빔프로젝터 등의 악기와 장비도 포함된다. 대관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이며, 월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대관시간은 오전(10시~13시), 오후(14시~17시), 저녁(18시~22시), 전일대관(10시~22시)으로 나눠 운영한다.

대관료는 장소 및 시간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 수준으로 대연습실 2만원, 중연습실 1만원, 소연습실 5천원이며 회의실은 사전예약에 한 해 무료 이용 가능하다. 단, 전일대관의 경우는 대연습실 4만원, 중연습실 2만원, 소연습실 1만원이다.

신청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11일 18시까지만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대관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최재은/기자

서울시 스타트업글로벌 성장거점 1호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개관

서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현지 접목, '창업지원정책 수출' 첫 사례



런칭 예정이다.

이런 성과에 주목한 베트남 과거 부도 호치민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시설인 '국립스타트업센터' 내 공간을 모두 임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급성장 중인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스타트업의 진출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현지 거점 개관을 통해 베트남기업과의 네트워킹과 글로벌 기술상용화 기회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현재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내 공간을 활용해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 현지화를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거점으로 서울시와 베트남 내 기관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19년 한 해에만 13만 8,100개 창업기업이 탄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스타트업 투자 점유율은 동남아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인도네시아 59%, 베트남 18%, 싱가포르 17%)

실제로 시가 '19년 지원을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총 35개 스타트업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231억 원의 매출과 26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2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우리의 과거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이하 '베트남 과거부'), 베트남 정통부 산하 VTC online과 공동 협력으로 투자유치, 현지법인 설립 등 지원을 펼치고 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자동변환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 ㈜웨인힐벤처스(대표 : 이수민)가 대표적이다. 현재 베트남 1위 기업인 빈(VIN) 그룹과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지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다. ㈜버닝브로스(대표 : 서성욱)는 올해 4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최초·유일의 여성 패션 전문 커머스 쇼핑몰을 런칭했다.

㈜웨인힐벤처스(Waynehills Ventures)는 베트남 내 AI 영상 콘텐츠 제작 및 SaaS1) 서비스 출시를 위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현지 진출을 위한 베트남어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버닝브로스(Burningbros)는 현지 유망한 로컬 브랜드들의 상품을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기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상품·배송 관리를 지원해 주는 풀필먼트 서비스2)도 런칭 예정이다.

이런 성과에 주목한 베트남 과거 부도 호치민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시설인 '국립스타트업센터' 내 공간을 모두 임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급성장 중인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스타트업의 진출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현지 거점 개관을 통해 베트남기업과의 네트워킹과 글로벌 기술상용화 기회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현재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내 공간을 활용해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 현지화를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거점으로 서울시와 베트남 내 기관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19년 한 해에만 13만 8,100개 창업기업이 탄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스타트업 투자 점유율은 동남아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인도네시아 59%, 베트남 18%, 싱가포르 17%)

실제로 시가 '19년 지원을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총 35개 스타트업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231억 원의 매출과 26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2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우리의 과거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이하 '베트남 과거부'), 베트남 정통부 산하 VTC online과 공동 협력으로 투자유치, 현지법인 설립 등 지원을 펼치고 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자동변환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 ㈜웨인힐벤처스(대표 : 이수민)가 대표적이다. 현재 베트남 1위 기업인 빈(VIN) 그룹과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지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다. ㈜버닝브로스(대표 : 서성욱)는 올해 4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최초·유일의 여성 패션 전문 커머스 쇼핑몰을 런칭했다.

㈜웨인힐벤처스(Waynehills Ventures)는 베트남 내 AI 영상 콘텐츠 제작 및 SaaS1) 서비스 출시를 위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현지 진출을 위한 베트남어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버닝브로스(Burningbros)는 현지 유망한 로컬 브랜드들의 상품을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기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상품·배송 관리를 지원해 주는 풀필먼트 서비스2)도

District 11, Ho Chi Minh City. 이곳은 베트남 현지에서 문을 연 서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거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1,758㎡)'이다.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은 해외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거점'을 조성하고, 서울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해외 현지에 접목시킨 첫 번째 창업지원정책 수출 사례이며, '서울의 스타트업 글로벌 거점 1호'다.

서울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해외 현지에 접목해 베트남 현지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서울 스타트업을 현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부터 현지 기업과의 기술교류·네트워킹, 투자 매칭, 해외법인 설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다는 목표다.

서울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은 해외 현지에 접목해 베트남 현지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서울 스타트업을 현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부터 현지 기업과의 기술교류·네트워킹, 투자 매칭, 해외법인 설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다는 목표다.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은 호치민의 대표 창업지원시설인 '국립스타트업센터(NSSC)' 내에 연면적 1,758㎡ 규모로 들어섰다.

시는 베트남 주요 지방성 산하 시정부 과학기술처(DOST) 및 주요 대학교 이노베이션센터 등 25개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시 창업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과 현지 수요를 매칭해주고 국내 스타트업과 현지 기업 간 기술교류를 위한 온·오프라인 로드쇼도 개최한다. 사업화를 위한 기술검증·실증과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스타트업 창업과 거래 규모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급성장 중인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스타트업의 진출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현지 거점 개관을 통해 베트남기업과의 네트워킹과 글로벌 기술상용화 기회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현재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내 공간을 활용해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 현지화를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거점으로 서울시와 베트남 내 기관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19년 한 해에만 13만 8,100개 창업기업이 탄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스타트업 투자 점유율은 동남아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인도네시아 59%, 베트남 18%, 싱가포르 17%)

실제로 시가 '19년 지원을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총 35개 스타트업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231억 원의 매출과 26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2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우리의 과거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이하 '베트남 과거부'), 베트남 정통부 산하 VTC online과 공동 협력으로 투자유치, 현지법인 설립 등 지원을 펼치고 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자동변환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 ㈜웨인힐벤처스(대표 : 이수민)가 대표적이다. 현재 베트남 1위 기업인 빈(VIN) 그룹과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지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다. ㈜버닝브로스(대표 : 서성욱)는 올해 4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최초·유일의 여성 패션 전문 커머스 쇼핑몰을 런칭했다.

㈜웨인힐벤처스(Waynehills Ventures)는 베트남 내 AI 영상 콘텐츠 제작 및 SaaS1) 서비스 출시를 위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현지 진출을 위한 베트남어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버닝브로스(Burningbros)는 현지 유망한 로컬 브랜드들의 상품을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기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상품·배송 관리를 지원해 주는 풀필먼트 서비스2)도

한 이후 지금까지 총 35개 스타트업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231억 원의 매출과 26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2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우리의 과거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이하 '베트남 과거부'), 베트남 정통부 산하 VTC online과 공동 협력으로 투자유치, 현지법인 설립 등 지원을 펼치고 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자동변환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 ㈜웨인힐벤처스(대표 : 이수민)가 대표적이다. 현재 베트남 1위 기업인 빈(VIN) 그룹과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지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다. ㈜버닝브로스(대표 : 서성욱)는 올해 4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최초·유일의 여성 패션 전문 커머스 쇼핑몰을 런칭했다.

㈜웨인힐벤처스(Waynehills Ventures)는 베트남 내 AI 영상 콘텐츠 제작 및 SaaS1) 서비스 출시를 위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현지 진출을 위한 베트남어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버닝브로스(Burningbros)는 현지 유망한 로컬 브랜드들의 상품을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기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상품·배송 관리를 지원해 주는 풀필먼트 서비스2)도 런칭 예정이다.

이런 성과에 주목한 베트남 과거 부도 호치민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시설인 '국립스타트업센터' 내 공간을 모두 임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급성장 중인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스타트업의 진출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현지 거점 개관을 통해 베트남기업과의 네트워킹과 글로벌 기술상용화 기회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현재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내 공간을 활용해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 현지화를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거점으로 서울시와 베트남 내 기관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19년 한 해에만 13만 8,100개 창업기업이 탄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스타트업 투자 점유율은 동남아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인도네시아 59%, 베트남 18%, 싱가포르 17%)

실제로 시가 '19년 지원을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총 35개 스타트업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231억 원의 매출과 26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2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우리의 과거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이하 '베트남 과거부'), 베트남 정통부 산하 VTC online과 공동 협력으로 투자유치, 현지법인 설립 등 지원을 펼치고 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자동변환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 ㈜웨인힐벤처스(대표 : 이수민)가 대표적이다. 현재 베트남 1위 기업인 빈(VIN) 그룹과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지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다. ㈜버닝브로스(대표 : 서성욱)는 올해 4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최초·유일의 여성 패션 전문 커머스 쇼핑몰을 런칭했다.

㈜웨인힐벤처스(Waynehills Ventures)는 베트남 내 AI 영상 콘텐츠 제작 및 SaaS1) 서비스 출시를 위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현지 진출을 위한 베트남어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버닝브로스(Burningbros)는 현지 유망한 로컬 브랜드들의 상품을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기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상품·배송 관리를 지원해 주는 풀필먼트 서비스2)도 런칭 예정이다.

이런 성과에 주목한 베트남 과거 부도 호치민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시설인 '국립스타트업센터' 내 공간을 모두 임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급성장 중인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스타트업의 진출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현지 거점 개관을 통해 베트남기업과의 네트워킹과 글로벌 기술상용화 기회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현재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내 공간을 활용해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 현지화를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거점으로 서울시와 베트남 내 기관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19년 한 해에만 13만 8,100개 창업기업이 탄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스타트업 투자 점유율은 동남아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인도네시아 59%, 베트남 18%, 싱가포르 17%)

실제로 시가 '19년 지원을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총 35개 스타트업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231억 원의 매출과 26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2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우리의 과거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이하 '베트남 과거부'), 베트남 정통부 산하 VTC online과 공동 협력으로 투자유치, 현지법인 설립 등 지원을 펼치고 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자동변환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 ㈜웨인힐벤처스(대표 : 이수민)가 대표적이다. 현재 베트남 1위 기업인 빈(VIN) 그룹과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지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다. ㈜버닝브로스(대표 : 서성욱)는 올해 4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최초·유일의 여성 패션 전문 커머스 쇼핑몰을 런칭했다.

㈜웨인힐벤처스(Waynehills Ventures)는 베트남 내 AI 영상 콘텐츠 제작 및 SaaS1) 서비스 출시를 위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현지 진출을 위한 베트남어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버닝브로스(Burningbros)는 현지 유망한 로컬 브랜드들의 상품을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기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상품·배송 관리를 지원해 주는 풀필먼트 서비스2)도 런칭 예정이다.

이런 성과에 주목한 베트남 과거 부도 호치민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시설인 '국립스타트업센터' 내 공간을 모두 임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급성장 중인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스타트업의 진출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현지 거점 개관을 통해 베트남기업과의 네트워킹과 글로벌 기술상용화 기회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현재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내 공간을 활용해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 현지화를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거점으로 서울시와 베트남 내 기관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19년 한 해에만 13만 8,100개 창업기업이 탄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스타트업 투자 점유율은 동남아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인도네시아 59%, 베트남 18%, 싱가포르 17%)

실제로 시가 '19년 지원을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총 35개 스타트업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231억 원의 매출과 26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2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우리의 과거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이하 '베트남 과거부'), 베트남 정통부 산하 VTC online과 공동 협력으로 투자유치, 현지법인 설립 등 지원을 펼치고 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자동변환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 ㈜웨인힐벤처스(대표 : 이수민)가 대표적이다. 현재 베트남 1위 기업인 빈(VIN) 그룹과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지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다. ㈜버닝브로스(대표 : 서성욱)는 올해 4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최초·유일의 여성 패션 전문 커머스 쇼핑몰을 런칭했다.

㈜웨인힐벤처스(Waynehills Ventures)는 베트남 내 AI 영상 콘텐츠 제작 및 SaaS1) 서비스 출시를 위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현지 진출을 위한 베트남어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버닝브로스(Burningbros)는 현지 유망한 로컬 브랜드들의 상품을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기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상품·배송 관리를 지원해 주는 풀필먼트 서비스2)도

이런 성과에 주목한 베트남 과거 부도 호치민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시설인 '국립스타트업센터' 내 공간을 모두 임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급성장 중인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스타트업의 진출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현지 거점 개관을 통해 베트남기업과의 네트워킹과 글로벌 기술상용화 기회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현재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내 공간을 활용해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 현지화를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거점으로 서울시와 베트남 내 기관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19년 한 해에만 13만 8,100개 창업기업이 탄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스타트업 투자 점유율은 동남아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인도네시아 59%, 베트남 18%, 싱가포르 17%)

실제로 시가 '19년 지원을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총 35개 스타트업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231억 원의 매출과 26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2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우리의 과거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이하 '베트남 과거부'), 베트남 정통부 산하 VTC online과 공동 협력으로 투자유치, 현지법인 설립 등 지원을 펼치고 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자동변환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 ㈜웨인힐벤처스(대표 : 이수민)가 대표적이다. 현재 베트남 1위 기업인 빈(VIN) 그룹과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지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다. ㈜버닝브로스(대표 : 서성욱)는 올해 4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최초·유일의 여성 패션 전문 커머스 쇼핑몰을 런칭했다.

㈜웨인힐벤처스(Waynehills Ventures)는 베트남 내 AI 영상 콘텐츠 제작 및 SaaS1) 서비스 출시를 위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현지 진출을 위한 베트남어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버닝브로스(Burningbros)는 현지 유망한 로컬 브랜드들의 상품을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기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상품·배송 관리를 지원해 주는 풀필먼트 서비스2)도

이런 성과에 주목한 베트남 과거 부도 호치민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시설인 '국립스타트업센터' 내 공간을 모두 임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급성장 중인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스타트업의 진출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현지 거점 개관을 통해 베트남기업과의 네트워킹과 글로벌 기술상용화 기회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현재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내 공간을 활용해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 현지화를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거점으로 서울시와 베트남 내 기관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19년 한 해에만 13만 8,100개 창업기업이 탄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스타트업 투자 점유율은 동남아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인도네시아 59%, 베트남 18%, 싱가포르 17%)

실제로 시가 '19년 지원을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총 35개 스타트업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231억 원의 매출과 26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2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우리의 과거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이하 '베트남 과거부'), 베트남 정통부 산하 VTC online과 공동 협력으로 투자유치, 현지법인 설립 등 지원을 펼치고 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자동변환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 ㈜웨인힐벤처스(대표 : 이수민)가 대표적이다. 현재 베트남 1위 기업인 빈(VIN) 그룹과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지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다. ㈜버닝브로스(대표 : 서성욱)는 올해 4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최초·유일의 여성 패션 전문 커머스 쇼핑몰을 런칭했다.

㈜웨인힐벤처스(Waynehills Ventures)는 베트남 내 AI 영상 콘텐츠 제작 및 SaaS1) 서비스 출시를 위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현지 진출을 위한 베트남어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버닝브로스(Burningbros)는 현지 유망한 로컬 브랜드들의 상품을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기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상품·배송 관리를 지원해 주는 풀필먼트 서비스2)도

이런 성과에 주목한 베트남 과거 부도 호치민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시설인 '국립스타트업센터' 내 공간을 모두 임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급성장 중인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스타트업의 진출을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데 이어 현지 거점 개관을 통해 베트남기업과의 네트워킹과 글로벌 기술상용화 기회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현재 진출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서울창업허브 호치민' 내 공간을 활용해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 현지화를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창업허브 호치민'을 거점으로 서울시와 베트남 내 기관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19년 한 해에만 13만 8,100개 창업기업이 탄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스타트업 투자 점유율은 동남아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인도네시아 59%, 베트남 18%, 싱가포르 17%)

실제로 시가 '19년 지원을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총 35개 스타트업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231억 원의 매출과 26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2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우리의 과거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이하 '베트남 과거부'), 베트남 정통부 산하 VTC online과 공동 협력으로 투자유치, 현지법인 설립 등 지원을 펼치고 있다.

텍스트를 영상으로 자동변환하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운영 중인 ㈜웨인힐벤처스(대표 : 이수민)가 대표적이다. 현재 베트남 1위 기업인 빈(VIN) 그룹과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지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이다. ㈜버닝브로스(대표 : 서성욱)는 올해 4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최초·유일의 여성 패션 전문 커머스 쇼핑몰을 런칭했다.

㈜웨인힐벤처스(Waynehills Ventures)는 베트남 내 AI 영상 콘텐츠 제작 및 SaaS1) 서비스 출시를 위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현지 진출을 위한 베트남어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버닝브로스(Burningbros)는 현지 유망한 로컬 브랜드들의 상품을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기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주요 대도시의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상품·배송 관리를 지원해 주는 풀필먼트 서비스2)도

NHN페이코, 저축은행 67개 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SB특특+ 앱에서 67개 저축은행 구비서류, 전자증명서로 제출 가능



앞으로 NHN페이코 및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대표 정연호)·저축은행중앙회(대표 박재식)와 협업을 통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로 개발을 완료하고 NHN페이코는 5월 17일, 저축은행은 5월 24일 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핀테크 플랫폼 가운데 최초로 '페이코 앱'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16종)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한 번에 수취 기관에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행안부는 NHN페이코와 함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월에 '페이코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는 'SB특특+ 앱'을 통해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30종)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SB특특+ 앱'과 연계한 67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67개 이외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0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유동 3차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차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 대부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페이코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저축은행중앙회 SB특특+ 앱을 통해 67개 저축은행까지 전자증명서 제출기관이 대폭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은행·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학·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구경북신공항·영일만항 활성화... 전략 구상 세미나 개최

경상북도는 지난 14일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하대성 경제부지사,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고용기 한국국제상학회장 등이 참석해 대구경북연구원과 한국국제상학회가 공동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따른 미래 항공산업과 기술방향을 전망하고, 포항 영일만항 특화방안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기조발표와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조발표는 류재영(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박사, '대구경북의, 대구경북'에 의한, 대구경북을 위한 '통합신공항'이라는 주제로 >신공항 중심의 지역경제권 조성 >2028년 이전에 신공항이 개항되도록 신기술과 신공법으로 사업 기간 단축 >대구·경북·의성·군위가 참여한 지역경제권 조성사업단 설치 >정부 부처(국토부, 산자부, 행안부, 농림부 등)의 유관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노윤진(대구가톨릭대 무역학) 박사는 "포항영일만항 우선과제 도출과 특화방안"을 중심으로 >



상업항 기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배후단지 개발 등을 통한 물동량 증대를 기반으로 항만 선순환 구조 확립 >도시기능과 항만 연결성 확보 >친수공간 확충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정책 제언을 했다.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대구경북이 미래 성장거점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공항의 조기 활성화와 항만 물류체계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첨단항공 산업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기술적 전략 구상 등을 위해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실제로 시가 '19년 지원을 본격화한 이후 지금까지 총 35개 스타트업이 베트남 진출에 성공했다. 이들 기업은 231억 원의 매출과 26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달성하고, 23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박보영, 서인국 사랑 선포 '숨뱀도발엔딩'!

'알고있지만' 송강X한소희의 달콤한 눈맞춤! '두근두근' 1차 티저 영상 공개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가 역대급 도발 엔딩으로 긴장감을 폭발시켰다. 박보영이 아무것도 알지 않기 위해 서인국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며 그를 도발, 위태롭게 마주한 두 사람의 투쟁이 시청자들의 숨을 멎게 했다.

지난 17일(월) 방송된 tvN 월화 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이하 '멸망')(연출 권영일/극본 임메아리/기획&제작 스튜디오앤뉴, 스튜디오드래곤) 3화는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4.5%, 최고 5.6%, 전국 가구 기준 평균 4.0%, 최고 4.7%를 기록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은 수도권 평균 1.9%, 최고 2.7%, 전국 평균 2.3%, 최고 2.7%를 차지, 전국 기준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1위를 기록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 유료플랫폼 기준/닐슨코리아 제공)

'멸망' 3화에서는 자신의 생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동경(박보영 분)과 세상과 자신의 멸망을 바라는 멸망(서인국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동경과 멸망의 동거가 시작된 가운데, 동경은 "잘 해줬잖아, 꼭 사라질 것처럼. 잘해주는 사람들은 꼭 사라져"라며 속내를 드러내 관심을 모았다. 이윽고 동경의 동생 선경(다원 분)이 찾아오며 뜻밖의 상견례가 이뤄지는 등 유쾌한 동거의 서막이 열려 웃음을 유발했다. 하지만 이도 잠시. "아까 개(선경)지?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묻는 멸망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동경의 모습이 교차돼 앞으로의 동거 생활을 궁금케 했다.

이후 멸망은 동경을 향해 연민을 품기 시작한 모습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동료 작가의 장례식을 찾은 동경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소녀 신(정지소 분)과 어깨를 부딪힌 후, 멸망의 과거 모습이 불현듯 떠올라 놀라움을 자아냈다. 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던 멸망의 모습이 기억난 것. 이에 동경은 "누구 하나 가여울 일 없다더니 순 거짓말"이라며 감정이 없었던 그의

말에 반박했지만, 멸망은 소녀신으로 인해 동경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했다. 멸망은 "무슨 일 생겨도 난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동경이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12시 전에 미리 손을 내미는가 하면, 동경을 향해 "안자 나는. 네가 무방비한 순간에 난 늘 깨어 있던 얘기가 여러모로 위험하지"라고 웃음 지어 심장을 쿡쿡거리게 했다.

하지만 멸망은 자신이 동경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소녀신이 "연민을 갖는다는 게 어떤 건지 깨달았어? 그 애를 그냥 죽게 둘 수 있겠니?"라고 도발하자, 멸망은 "처음부터 죽을 운명이었어. 내가 누굴 가여워해?"라고 반박하며 돌아섰다. 이어 집으로 돌아온 멸망은 "나도 기억해. 다들 우네 데 웃고 있었어 어린애가. 그래서 기억나 슬퍼서"라더니 "다 상관없어. 난 널 웃게 할 생각 없으니까"라며 서늘함을 내비쳤다.

이후 멸망은 동경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통을 빌미로 그를 압박해 마른 짐을 삼키게 했다. "내가 쓸데 없이 너무 친절했지"라는 멸망의 말과 함께 동경은 한 순간에 밀려오는 고통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동경은 그를 쏘아보지만 할 뿐 굴복하지 않았고, 이에 멸망은 결국 그의 손을 잡아 고통을 상쇄시켜줬지만 이내 "넌 나 때문에 울게 될 거야.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어 질 거야. 그래야만 널 죽일 수 있으니까"라고 말해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러나 동경은 물러서지 않았고, "그게 겨우 네 계획이야? 그럼 내 계획은 이거야"라더니 옥상 난간 위로 올라서 떨어지려는 모습으로 심장을 쿡 떨어지게 했다. 그 순간 동경도 사랑도 마음도 없어? 인간이 아니라서? 난 있어. 그래서 말인데, 널 사랑해볼까 해. 그럼 나는 아무 것도 알지 않고 살 수 있을 테니까"라고 말해 긴장감을 선사했다. 더욱이 말미 "그럼 제대로 하자. 날 위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어질 만큼"이라며 동경을 끌어당겨 안은 멸망의



모습에 이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서로를 쏘아보는 동경과 멸망의 위태로운 투쟁이 담겨 긴장감을 치솟게 했다. 이에 서로 다른 목표를 품은 동경과 멸망이 어떤 이야기를 그려갈지, 향후 전개에 궁금증이 고조된다.

이처럼 '멸망'은 설렘과 긴장감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간 동경과 특별한 존재 멸망의 이야기를 쏙쏙하게 담아내며 시청자들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박보영과 서인국의 요물 케미스트리가 시청자들을 제대로 홀렸다. 달콤하고 유쾌한 동거 모먼트로 연애 세포를 생성시키는가 하면, 분노 서린 눈빛으로 팽팽하게 대치하는 모습으로 식은 땀이 흐르게 하는 등 극과 극을 오가는 케미로 보는 이들을 시선을 휘어잡았다. 뿐만 아니라 박보영과 서인

국은 찰진 호흡이 돋보이는 티키타카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 앞으로의 케미스트리에 기대감이 치솟는다.

이에 '멸망' 3화 방송 이후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막판에 숨도 못 쉬고 봤네. 심장 뛰어", "엔딩 몰입도 미쳤다", "동경-멸망 연기함 너무 좋다. 꽃비들 내 인생케미", "오늘 텐션 장난 아니었다. 4화 빨리 와"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tvN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는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존재 '멸망'과 사라지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계약을 한 인간 '동경'의 아슬아슬한 목숨담보 판타지 로맨스.오는(18일) 밤 9시 4화가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알고있지만' 송강, 한소희가 드러 베일을 벗었다.

오는 6월 19일 방송 예정인 JTBC 새 토요소페셜 '알고있지만'(연출 김가람, 극본 정원, 제작 비온드제이·스튜디오N·JTBC스튜디오/원작 네이버웹툰 <알고있지만>(작가 정서)) 측은 14일, 설렘으로 가득한 두 청춘의 모습을 담은 1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알고있지만'은 사랑은 못 믿어도 연애는 하고 싶은 여자 유나비(한소희 분)와 연애는 성가셔도 썸은 타고 싶은 남자 박재언(송강 분)의 하이퍼리얼 로맨스를 그린다. 지나치게 달콤하고 아찔하게 섹시한, 나쁜 줄 알면서도 빠지고 싶은 스물둘 청춘들의 발칙한 현실 연애가 시청자들의 심장을 두드린다. 동명의 인기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알고있지만'은 캐스팅부터 화제를 모았다. 대세 청춘 배우 송강, 한소희의 만남은 역대급 비주얼 커플의 탄생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뜨겁게 달궜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1차 티저 영상은 기대를 확신으로 바꾼다.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박재언 목 뒤에 새겨진 나비 타투. 이어진 유나비의 눈부신 미소는 설렘을 자아내는 동시에 두 사람의 인연에 궁금증을 높인다. 꽃비가 흠날리는 테니스 코트 한가운데, 서로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두 사람. 자신에게 성큼 걸어 들어오는 나비를 바라보는 재언의 답답한 얼굴에도 어느새 환한 미소가 피어오른다. 두 사람의 달콤한 눈맞춤은 보는 이들의 심장까지 간지럽게 만든다.꽃뿔해서 더 설레는 거리감이 이들의 로맨스를 더욱 궁금케 한다.

송강은 연애는 성가셔도 썸은 타고 싶은 남자 '박재언'을 연기한다. 누구에게나 친절할 박재언은 사실 타인에게 무관심한 비연애주의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멸망의 고수다. 송강은 마성의 남자로 변신해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훑치며 설렘을 책임질 전망이다. 한소희는 사랑은 못 믿어도 연애는 하고 싶은 여자



'유나비'를 통해 인생 캐릭터 경신을 예고했다. 허무한 첫사랑의 기억으로 운명을 믿지 않지만, 박재언과의 만남 이후 일탈이 시작된다. 박재언 역시 갑자기 날아든 나비를 통해 낯선 감정과 마주한다. 감정에 서투른 '낯(Not)어른' 스물둘 살의 청춘 유나비와 박재언의 뜨겁고도 차가운 리얼 연애담을 가감 없이 보여줄 송강, 한소희의 시너지가 더욱 기대된다. '알고있지만'의 1차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에서는 "비주얼 합부터 미쳤다", "싱크로율 대박", "꽃뿔한 청춘 로코인가? 숨뱀", "무조건 본다, 벌써 떨린다", "이게 바로 웹툰, 만찐 비주얼", "인생 케미 예약" 등의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JTBC 새 토요소페셜 '알고있지만'은 재미와 완성도를 위해 10부작, 주 1회 편성을 확정 지었다. 오는 6월 19일(토) 밤 11시 첫 방송된다.

현유주/기자

'보이스4' 시즌4 新 빌런 등장 예고! 1차 티저 영상 첫 공개!

오는 6월 tvN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는 '보이스4'가 1차 티저 영상 2종을 공개하며 시즌4 새로운 빌런의 등장을 알린다.

시즌4로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tvN '보이스4: 심판의 시간'(연출 신용휘/극본 마진원/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보이스 프로덕션/14부작)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텔러.

시즌4에서는 초청력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가 등장하면서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범죄자로 인해 공지에 몰린 보이스 프로파일러와 타협을 불허하는 원칙주의 형사의 새로운 골든타임 공조를 박진감 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특히 탄탄한 필력으로 '보이스' 시리즈를 탄생시킨 마진원 작가와 '터널', '크로스'로 독보적인 몰입도와 쫓길한 스텔을 선사했던 신용휘 감독이 의기투합해 또 한 번의 신화 탄생을 가동한다.

그런 가운데 tvN '보이스4' 측은 18일(화), 수많은 범죄를 해결했던 골든타임팀의 재출동과 새로운 빌런의 등장을 예고하는 1차 티저 영상 2종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네이버TV URL: <https://tv.naver.com/v/20266890>, <https://tv.naver.com/v/20266908>)

공개된 첫번째 티저 영상은 이하나(강권주 역)가 트라우마가 된 악몽같은 지난 위기를 다시 마주하며 긴장감을 증폭시키는 한편 두번째 티저 영상은 매 시즌 '보이스'의 충격적인 전개를 이끌어왔던 빌런들이 총출동해 시선을 강탈한다. 시즌1의 김재욱(모태구 역), 시즌2의 권율(방제수 역), 시즌3의 박병은(카네키 마사유키 역)인 것. 앞서 김재욱은 나쁜 놈의 섹시함으로, 권율은 절제된 섬뜩함으로, 박병은은 두가지가 결합된 최종 진화형 빌런으로 시청자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특히 "그 귀, 대가를 치러야겠지요?", "오랜만인데. 이 느낌", "그러게. 왜 까불어" 등 빌런들의 시그니처 대사는 '보이스'가 선사했던 충격을 다시 떠올리게 만든다. 무엇보다 '보이스'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되는 긴장감과 빠져들 수 밖에 없는 몰입도를 선사한 가운데 이하나의 "코드제로 사건 발생. 골든타임팀 다시 출동 바란다"라는 재출동 요청만으로 골든타임팀이 새롭게 쫓을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절로 끌어올린다.

과연 시즌1의 김재욱, 시즌2의 권율, 시즌3의 박병은을 이을 시즌4의 새로운 빌런은 누구일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새로운 빌런의 등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보이스4'는 2021년 6월 tvN을 통해 첫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배우 김태리, 다방면으로 활발한 행보 이어가는 대세 배우로 눈길!

김태리의 다채로운 행보가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승리호'에서 '장선장' 역을 맡아 걸크리시 매력과 대체불가한 존재감으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배우 김태리는 최근 영화 '외계+인'의 크랭크업 소식으로 또 한 번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그런 가운데 김태리는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의 엠버서더로서의 활동도 이어가며 다방면에서 팔색조 활약을 보이고 있다. 티파니 브랜드의 뮤즈인 그녀는 14일 더현대 서울에 새로 부티크를 오픈한 티파니의 오픈링 행사에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 김태리는 노란 원피스로 독보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동시에 단아하면서도 화사한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또한 브랜드의 주얼리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한층 아름다운 자태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렇듯 다방면에서 보여주는 행보는 물론 오랜만의 근황에도 한층 수려한 미모를 자랑하고 있는 김태리가 앞으로 또 어떤 활동들로 찾아올지 기대감이 높아진다.

전순희/기자

